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西班牙제네스트 全國的으로蔓延
死者五十名負傷者百六十名
아州에赤色革命勃發

【電通마드리드五日發】 레루-新內閣에 反抗하는革命的罷業은 西班牙全土에 亘하야蔓延猖獗을極하고잇는데 五日政府의發表한바에 依하면 目下와罷業은거이全國에 퍼젓다 그리고 산세바스티안 縣知事는政府軍이勝利를 하고잇다고言明하엿다 又非公式情報에依하면 現在의西班牙全國의 死者는五十名、負傷者는 百六十名의多數에達하엿다고 보이며가장激戰이엇슨 아스트리아뿐만서도 負傷者七十五名에 達한다고한다

【電通오베드(西班牙)五日發】 레루-新內閣의政權에 反抗하는 罷業데모는 方今西班牙各地를 席捲하고잇는데 아스트리아州에서는 赤色革命이五日勃發한 結果只今까지 死者三名其他負傷者多數를낸것이 判明되엿다

左翼罷業團과 警官隊衝突

【마드리드五日發聯合】 左翼勞働組合의 總罷業斷行과同時에首都마드리드는 異常히殺氣充滿하야 벌서罷業團과警官隊와의사이에 衝突이생겻다그結果死者三名重傷者三名을내고四百名의組合員은 逮捕되엿다 一方警察隊는 罷業團의巢窟을襲擊하야 組合員二百名을一網打盡逮捕하고 多數의武器를押收하엿다 五日朝來거이모든交通이停止되고 各商店은日用品店外에모다門을닷게다더다 地方狀況은目下一切不明하나 이미세뷔라、발세로나兩市에도騷擾가勃發한것이 判明되엿다

勞働總罷業은 第二次革命化!
新內閣騷擾鎭定極力、努力이나
猛烈한市街戰依然繼續

【마드리드六日發聯合】 레루-反動內閣의實現을 契機로하야斷行된 社會黨勞働組合의總罷業은 其後第二次革命으로 發表하야 西班牙全土는 再次內亂渦中에陷入되엿다 一九三三年十一月의 總選擧로 카톨릭農民黨을中心으로한 右翼各派는俄然勢力을 回復하야 中間派急進黨左翼은 事實上政權을모다解消하여버리라고 하는데對하야 地下에潛入하야 오랫동안準備工作을 繼續한左翼運動이表面化한만치 從來再三離叛한罷業과달라 情勢가 자못重大한바가잇서 西班牙共和國은共和革命以來의最大危機에 瀕한것으로보인다 左翼過激分子는 小銃、機關銃、爆彈을使用하야 處處에서 警官隊와衝突하야總罷業開始以來 一晝夜가 못되여 死者數十名 負傷者數百名을 내엇다 爭擾의中心은北部아스트리아州로 同地에서는 벌서戒嚴令이 公布되엿는데 事態의重大性에鑑하야戒嚴令은바로全國에 公布될것으로豫想된다 레루-內閣은 五日午前十時繼續閣議를 열고爭擾鎭壓에努力中이다 그리고오뷔드에서는猛烈한 市街戰이行하야 死者七名負傷者五十名을내엇다

西班牙共和國內 카타로니아獨立宣言
五日正午同地方執政評議會서
暫定首府는발세로나

【마드리드五日發聯合】 발세로나로부터의 報道에依하면카타로니아 自治共和國의 最高執政評議會는五日正午緊急會議를열고 西班牙共和國으로부터 完全히 分離獨立을 宣言하엿다고한다 宣言要旨는如左하다

一、카타로니아 自治共和國은 西班牙聯邦共和國으로부터分離하야 完全 獨立함

一、新國家는第三西班牙共和國이라稱하고 西班牙共和國의前首相아자니아氏를 大統領으로推戴함

一、首府는 暫定的으로발세로나에設置함

右報道에接한 발세로나市民는熱狂하야 市中을 示威進行하며 各其自由카타로니아共和國萬歲를 高唱하고잇다

完全獨立을宣言한 카탈로니아의沿革

이番西班牙共和國으로부터 完全獨立을宣言한 카탈로니아는西班牙의東北地方으로 발세로나、타라고나、레리다、제로나의四州를包含한곳이다 總面積은三二、一九七方粁인데 北은 피레네山脈、西는아라곤地方、南은 地中海에臨하야잇다 이地方은大體로 山岳과河川이만흔데 山岳에는森林이茂盛하고 河川流域은大端히肥沃하야 各種鑛物의產出이豐富하다 鑛產物에는 銅、亞鉛、鉛、만강、岩鹽等이잇고 海岸에는製鹽業이盛行되며 이地方의綿毛絹等의各種織物은 西班牙의가장重要한產物이다 總人口는一、九六六、三八二人이다

沿革

이地方은上古時代에는 羅馬에屬하얏고 五世紀頃에는알란人、고-트人、八世紀頃에는 아라비아人의侵入을바덧다가 九世紀初頭에 아라비아人을 擊攘함과同時에 푸랑크王國에屬하얏다 그後 八八八年에 公國이 되얏다가 一一三七年에는 아라곤과合하고 다시 一四七九年에는 카스치리야와聯合關係를매자섯다 그러나카스치리야와의 融和가圓滿히되지못하야 一六四〇年에는필립四世에叛逆하야 佛蘭西에屬한일도잇섯다 一七〇一年西班牙繼承戰爭때에는 獨逸皇帝가推薦하는칼스를支持하얏다

對軍縮豫備會商 米國의根本方針
大艦主義依然固執

【電通華盛頓五日發】 確聞한바에依하면 데비스代表와스탄드레提督을 中心으로編成된海軍軍縮會議倫敦豫備會商米國代表部는 各國軍備決定의技術的原則外에 그背景이될政治的一般的根本態度로서如左한方針으로서會談에臨할것으로解釋된다

一、世界의 諸部分에서各國關係國의利益이錯雜하여 잇는곳은兵力의 均衡을圖謀하야安定식힘이妥當하고 새로운國家主義의 擴頭는平和機構를維持하는所以가아니다

一、오래前부터 極東에英米其他諸國이維持해온 勢力은이를持續식힐것으로 認定하고現行의軍備比率은 槪數的으로支持함을適當타고생각함 그리하야 이主張은渡洋作戰主義의主張과 一致되는것으로서前進根據地업시 遠隔의領土와權益을防守키爲하야 米國은大艦巨砲主義를 絕對로必要로한다는論據로서 會談에提出될것으로豫測된다

佛蘭西政界動搖
議會開會압두고
倒閣運動에極左派共同戰線
首相은危機解消努力

【巴里五日發聯合】 오랫동안 鎭靜狀態를 繼續하고잇든佛政局은 去七日及十四日兩日에亘한縣會及郡會의議員半數의改選二十五日의난트의 社會黨大會三十日前後의議會開會를 압두고俄然活氣를呈하고잇다 特히急進黨大會에서는 (首領에리오氏가 擧國一致內閣에入閣하여잇다) 黨領袖五名의進退가 決定될豫想으로 情勢의推移如何에依하여는 現內閣의運命에도關係될것으로重視된다 萬一擧國一致內閣이瓦解되게되면 二月六日과가튼事件이 再演될터로內閣勢威은 未免할것이라하야念慮된다 이러한形勢를따서 極左派의共和黨과 社會黨은共同戰線을펴고 擧國一致內閣打倒運動에專力하고잇스나 一般輿論은 依然現內閣을支持하야最近에는 急進社會黨大會後에도現內閣은繼續하리라는것이 一般의觀測이다 두메르그首相은西日夜五回재의 라듸오放送으로一般國民과 極左派와의共同戰線의危險을指摘하야 極左派가黨派的觀念을버리고 祖國을爲하야 健全한分子가結盟을必要가잇는旨를力說하야 다음과가튼具體的政策을 强調하엿다

一、政府는首相直屬의 國民經濟審議會를設置하야 經濟的組織의部門에서 代表를選任하는同時에 右審議會와連絡키爲하야地方審議會를設置함

一、司法權은 政治로부터完全히獨立식힐事

清津滿國領事 不遠間實現?

【新京六日發聯合】 今年度의滿洲國領事館의 日本國內設置에關하여는 日滿兩當局間에서交涉中으로 滿洲國側의希望中于先敦賀、門司、清津의三名譽領事가實現될模樣이다

레루新內閣이 治安確保를放送

【마드리드五日發聯合】 總罷業情勢의重大性에鑑하야 레루-新內閣의內相은 五日午後全國에放送演說을行하야 治安確保에萬全의 處置를講하고잇는決意를表明하엿다 內相의演說要旨는如左하다

共和國政府는 모든手段을다하야 治安維持에 努力하고 잇다總罷業은不法行爲다 맑쓰徒黨의不逞獨斷行爲에 依하야政府가脅威될것과如한일은 絕對로업다

一方레루首相은 警察隊의自重을要請하야 如左히宣言하엿다 流血의慘事은 될수잇는대로避하려한다 警官隊는自進하야挑戰的行動에 나가지안키를바란다

鑛山의 火藥庫를奪取하야衛護할수업는勢力이다 政府軍은激戰後에이발의叛徒를擊退入城하야叛徒百五十名을捕虜로하엿다

戒嚴令宣布

【電通마드리드五日發】 아스트리아地方의革命騷動으로 因하야 警備隊員六名、市長九名이死亡하엿다 그리고五日에는戒嚴令이宣布되엿다

死傷者五百 政府非公式發表

【電通마드리드六日發】 西班牙革命의中心地인 西班牙西北地方의叛徒의勢力은 侮蔑할수업는것이잇스나 政府의非公式發表에依하면死者百名 負傷者四百名에達한다고한다

政府軍漸次 統制權回復

【電通오기엔드(西班牙)五日發】 政府의 正式發表에依하면 政府는漸次統制權을 回復하는中으로 陸軍의數個聯隊는 미에레스를占領하엿는데 叛軍은

排日紛爭解決次 調查委員會設置
아州排日問題續報

【피닉스五日發聯合】 솔트리버平原一帶의 排日運動激化에對하야 아리조나州 知事부어氏는紛爭을解決키爲하야 調査委員會를 設置키로決定하고 五日 商業委員홈스氏를 任命하는同時에아리조나州 日本人會及米國人農民團에對하야 委員選出을要請하엿다

臨時會議압두고 豫算編成困難莫大
關西風水災로增稅對象에異狀
自然增收도一場春夢

【東京電話聯合】 一九三五年의危機打開를 目標로한軍部의要求豫算을 中心으로編成된十年度膨大豫算에關하야 大藏省은目下愼重한 態度로서이査定에當하고잇는데 突然惹起된關西地方의 風水害에依하야臨時議會召集要望에 政府도드듸여從來의態度를一擲하고 召集키로決意하야 大演習終了後開會키로되엿슴으로 大藏省으로서는臨時議會召集의題目인

一、農村對策
一、饑饉地方救濟對策
一、九州四國旱害對策
一、北陸水害對策
一、關西地方風水害對策

의諸對策에伴한 豫算關係까지함께審議하야 十年度豫算査定及追加豫算査定에 萬全을期하고잇다 卽海軍 農林大藏司法等의各省의査定은 大體로 終了되고 目下陸軍豫算에 關하야 檢討中으로 來週부터는商工、外務等남어지 各省의查定에當할 順序인데 全部査定을終了한後 主計局에서集計하야 成案을어더 十月末省議에서決定한後 十一月大演習前에提出키로되엿다 그런데財源關係를보면 今回의風水害로因하야 從來一億圓內外로豫想하고잇든自然增收는 煙草專賣益金酒稅를爲始하야 營業收益稅、所得稅等諸稅의減收가顯著하야 全然豫想이틀리게된一方 이와併行하야 어느程度의租稅減免이行해지는結果로 明年度歲入에莫大한異常을齎來할것은必然한形勢이고 他方歲出에는追加豫算이 彪大한豫算이 要求되야 그通過는不可避的情勢임으로 이가튼歲入歲出을調整키爲하야 赤字公債를 發行한다고하더라도 追加豫算의性質과風水害의影響으로 그調整力은減殺될것은 必然之勢이다 財務當局은 全然엇지할수업는 窮地에빠저 如何히하야이를調整할것인가苦慮하고잇고 또一部에傳되는 大藏省의 最後案인增稅問題에 關하여도 徵稅對象인關西地方의 商工業者가甚大한災害를입은以上 이를斷行할에는 疑問될餘地가잇서 大藏省으로서는 增稅强行은政治問題는 姑捨하고實際問題로서적지안혼 支障을입게되엿다

海軍大演習 海軍省公表

【東京電話聯合】 海軍省公表 去八月一日第一次演習開始以來二個月餘靑赤兩軍은 그準備를하든中 十月二日午後四時第二次演習開始命이내리어 兩軍은戰鬪를開始하엿다 兩軍主力의距離는 겨우四千메돌로서天候의回復과同時에 彼我突進戰鬪를敢行하야 午後三時第二次演習은中止되엿다

軍縮豫備會商
會商劈頭에는 廢棄通告를保留
干先新軍縮案提示코眞意說明
通告期는十一月下旬

【東京電話聯合】 倫敦海軍豫備會商은 來二十日頃부터 再開되기로되엿는데 會商開始와同時에 關係列國의 注目의 焦點이 日本側의所謂華府條約廢棄通告提出方法及時期에關하여는 日本으로서는 如何한境遇라도 會商劈頭에 廢棄通告를提出하는 手段을取하지안코各國代表에對하야 日本側의新軍縮案을 提示하야日本側主張의公正妥當性及 日本의軍備均等權要求의眞意를 充分諒解식혀會談이 一段階에達한最後의時期를살피어 樞密院에御諮詢手續을 取한後外務省으로부터駐米齋藤大使에게訓電하야日本政府의 正式通告書를米國政府에 寄託할터이다 右正式通告書의 送附는只今形便으로는十一月中旬又는 下旬頃이될模樣이다

代金支拂念慮코 日政府保證要求
廣田外相이便法考慮를回答
北鐵交涉의그後

【電通東京電話】 駐日蘇聯大使유레니에프氏는 五日午後五時半 廣田外相을訪問하고 北鐵讓渡의細目的條件에關한 重要意見을行하야 兩者間에大體意見一致를보앗는데 유레니에프大使는 蘇聯政府의意向으로서 特히滿洲國政府의代金支拂에對한 日本政府의保證問題를 重要視하야 如左한主張을하엿다

유大使―蘇聯政府는 아직滿洲國을正式으로承認하지안하엿다 딸아滿洲國政府의 北鐵讓渡代金支拂에關하여는 반다시日本政府의保證을 밧지고십다 이點에關하야 日本政府는 如何히考慮하는가

廣田外相―滿洲國政府는 北鐵讓渡代金을 日本銀行團으로부터借入하야 蘇聯側에支拂하는것인즉 滿洲國의支拂은極히確實하다 딸아蘇政府가이를念慮할 必要는조금도업다 아직滿洲國側이 日本銀行團으로부터 한번에象償할는지 又는分割할는지는未定이나 本大臣으로서도 北鐵交涉에는誠意로써 斡旋하여왓슨즉 滿洲國側의代金支拂에關하여도充分仲介의勞力을 액기지안할생각이다

라고述하야 日本政府自體가保證에서는것을 婉曲히拒絕하엿다 이에對하야 유레니에프大使는거듭 蘇政府의意向을開陳하야 考慮를求하엿슴으로廣田外相은 滿洲國의 代金支拂에對한日本側의保證方法에關하여는달리무슨便法이잇슬듯하니 考慮하여보자 고考慮를約言하고 會見을마첫다

軍備拘束廢棄를 獨國防軍이要求
佛政府側은實現을確信

【電通巴里六日發】 佛政府側의情報에依하면 獨逸國防軍의最高首腦部는 獨政府에對하야 벨사이유條約中의 軍事條項을速히廢棄키를 强硬히要求하고잇는模樣이다 卽國防軍側은獨逸이有力한兵力及 탕크其他軍需品을大量으로 製造增加하고잇는事實이잇슴에不拘코 只今도이가튼軍事條項이遵守되는것가튼態度를取하는것은 不可能하다고思考하게된것이다 이에關하야 부론벨그國防相은 極히强硬한態度로써 곳十一月一日以前에廢棄할것이라고 主張하엿스나 노이라드外相은 이에反對하야 只今벨사이유條約中의 軍事條項의 廢棄를 聲明함은聯合國側의 共同戰線再建에有利하다는旨를述하야 結局延期키로決定한것인데 一月十五日의자르地方歸屬을決定할 一般投票까지에는廢棄하려는 形勢라고當地에서는 確信하고잇다

駐平政整委員會 第五次大會開催
今日外交大樓에서

【北平六日發聯合】 駐平政務整理委員會第五次大會는六日午前十時부터 外交大樓에서 開催되엿다 委員長 黃郛氏以下各委員王克敏氏를爲始하야委員十七名出席下에 먼저黃郛委員長이서서半歲年안中央政府와의交涉經過를 詳細報告한다음 中央政府의 北中及日滿에對한方針을講述하고 今後의方針에對하야委員會의審議를求하엿다 그리고 暫閒休憩後 繼開하고 韓復渠氏以下 各省政府首席으로부터 各其管下政務에關한報告가잇슨後 三十條件에達하는提案의審議에 들어갓는데右提案中黃郛委員長이가장 注力하고잇는것은 職屬整理委員會組織辦法案으로서 委員其他는大體黃郛氏의 提案대로全會一致로可決될것으로 期待된다

[illegible]六日出發廿一日歸任豫定

人事‧集會

▲大島京畿道內務部長 堤屬을帶同하고 東京 大阪 茨城 福島各府縣管內地方行政事務視

八面鋒

◇西班牙의總罷業은 마츰내革命化하야 또한판 떠들석하게되자、

◇「카타로니아」가 獨立을宣言하고 「第三西班牙共和國」이라고看板을걸엇다。

◇새나라의 壽命이 길지 짧을지는 알수업스나 國際聯盟의 會員이또늘겟군。

◇每日平均二十六件、一個月에 七百三十七件、九月까지에六千六百四十六件의鑛山出願。

◇總督府鑛山課가繁昌함은 조치만은 慾慾에 달뜬사람이 늘어감은 戒心할일。

◇貨幣生活이 勤勞精神을 죽이드시 地下開發이 民心을 浮虛케한다면큰일。

京城府本町二丁目
時計及蓄音器完全修理에對하야
標準時計 Ⓜ 村木時計店
電話本局四七一‧四七二‧四三七七

最新旋盤機가輸入되엿습니다。如何한難物時計라도 新旋盤機를使用하야 破損部品의補充에依함으로 完全修理가되옵니다。今般帝都에서 日本一이라稱하는 時計修理大先生數名을招聘하엿습니다。아모조록時計及蓄音器의修理는 村木으로 急하신분은곳하여드립니다。通知하시면곳往訪 弊店은從業員總員八十名으로써全力으로奮鬪하고잇습니다 指輪、帶止類其他金工細工도합니다

大阪株式會社柴田商店滿鮮總代理店
原料產地直輸入 全鮮染料商側 兼買販價主義
염료물감
原料卸商 德世洋行
京城府鍾路三丁目 電話光二八番、振替京城八〇四番

五千圓
이빠질수잇나 二十錢이면千圓 四十錢이면二千圓 六十錢이면三千圓 八十錢이면四千圓 一圓내고運조호면五千圓에빠지고아니빠저도내인돈의還生之道가有한小額債劵을勸告하오니 此廣告보신新聞名을記入하야說明書를請求하시압
大阪市旭區大宮町 共利社
外交員도募集함

有利事業
●洗濯石鹼 ●洗曹達 ●食酢(酢の素)速製醬油 ●化粧クリーム ●其他六七種
左記各種製造工業은資本적게들고利益이相當히有利事業임으로責任지고專授하오니 工業에有意하시분은二錢切手添付하야知하여傳授規定과各種原料時價表를送呈함
工業原料 釀造材料 直輸入商
京城鍾路四丁目二 榮信社工業所
振替京城一二〇五五番 電光一二一四番

日本一이産額 日本一의品質 日本一의信用
イカリソース (이까리소스)
日本第一인
◎目下ビスコ景品附特賣中◎
イカリソース二合入一瓶買上마다
酵母菓子 ビスコ 一個式進呈
一、은ソース界의覇王
一、은菓子界의明星
더업는德用的買物???
只今곳用命을願합니다。

祝朝鮮日報清道支局發展
清道郡大城面楡川洞
楡川麵子製造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專務取締役 取締役 仝 仝

고무손발
手足업는人은悲觀마시고速히義手足을應用하야天職을完全히하시요 松葉杖
義手足
見本帝別次第郵呈
京城長谷川町一〇三 高野義肢製作所 電本一二二六番

朝報案內
男女 有給社員若干名採用 希望者는履歷書持參又는送付할事 面談後採用함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愛國生命朝鮮支部

十月四日封切
開館第一週年記念超特別大興行
名畵ボレロの封切! 錦上更に花 都舞踏界の第一人者市村讓治氏枫尾なか子孃氏のステージ、ショオ公開
1、短篇 ニュース
2、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監督 ラルフ、マーフイ 主演 リチャード、リチャー ドアーレン
3、ステージ、ショオ 1、ワルツ 2、タンゴ 3、ボレロ
△麥畑を荒す者 農村問題のかしましき今、此の切實なる一篇を贈る!
4、短篇漫畫不思議の國のベティ
5、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監督 ウエズリイ、ラッグルス 主演 ジョージ、ラフト
△ボ レ ロ
ボレロ！ジョージ、ラフト一代の至藝！ 希望も、戀も、男一匹の運命を賭けて踊り拔く、之は不運たりし一人の男の物語、かき亂すが如く、むせぶが如く、堪えがたき迄に情感をそそる名畵ボレロ！
明治町一 電本一五一番
浪花館

形療整治의얼골
相談無料 清華醫院
京城 黃金町一丁目

コロムビア 洋樂 レコード
アサヒ樂器店
京城府本町一丁目 電話本局二六五九番

執行猶豫가 四名 最高四年役言渡

結社를協議로認定하야比較的輕刑

韓琠鍾等十六名判決

중국공산당조선국내공작의원회 재건사건의 관계자 한전종(韓琠鍾) 동십륙명에 대한치안유지법위반및 총포화약취체령 위반(銃砲火藥取締令違反)사건은 작륙일오전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으로부터최고징역 사년으로 최하징역팔개월의 판결을 언도하엿다 처음에검사가 기소할때에는 결사(結社)죄로 인정한것인데 예심에서와 공판에서는 다만 협의(協議)죄로만 인정하엿기때문에 죄가 비교적 경하게되엿다고 재판장은 말하엿다 그러고일본제국이 멸망하기전에는 공산주의실현은 불가능한일이나 다시는 그런운동을 하지말라고 피고들에게 설유하엿다

열여섯명가운데서 네명은 사년간집행유예로되엇고도네명은만약상소(上訴)를하지안는다면미결구류일수를 통산한관게로 아프로이십일만 징역을살면 출옥하게된다 집행유예의 판결바든 사람과 아프로이십일만 지내면 출옥하게될사람들은 얼굴에 약간웃는빗을 띄고서 퇴정하엿다

▲治安維持法違反▼
▲韓琠鍾 四年
▲申大成 三年
▲李斗玉 三年
▲李昌周 三年
▲鄭宗奭 二年半
▲金鼎九 二年半
▲李春景 二年半
▲張保羅 二年
(以上 八名에 各未決通算五百日)
▲太南龍 一年
(未決通算五百日)
▲趙世煥 一年半
(未決通算百日)
▲柳東泰 同上 (同上)
▲成樂慶 同上 (同上)
(以上 四名에 四年間執行猶豫)
▲銃砲火藥取締令違反▼
▲金國範 十個月
(未決通算二百八十日)
▲金初吉 六個月
(未決通算百六十日)
▲任泰允 八個月
(未決通算二百二十日)
▲金聖子 六個月
(未決通算百六十日)

佛飛行機世界一週

불란서 비행가「안드레·바이인」씨는 조종사「피에르·바이이」씨와 및동승자「라지이니네」의량씨와함께 일백구십마력의「팔만」기(機)로 세계일주 유람비행을 결행하기로되엿는데 십일월상순에는 북경(北京)상십일로도 부근으로부터 조선으로 드러와서 해안선을 따러서경성에 착륙하엿다가 대구(大邱) 울산(蔚山) 부근을지나서 동경(東京)방면으로 향할예정이라는데 그 비행기는 동경에서 횡빈(橫濱)으로 운반하야 다시 상항(桑港)으로 가는기선에시르리라한다

圍棋雜誌發行

시내다옥정구십구번지 조선괴원(朝鮮棋院)에서는 조선의 괴도(棋道)조차도 부진함을 탄하야 여러가지로 사계의진흥을노모하고잇거니와 금번 신정괴보(新訂棋譜)라는 월간잡지를 발행하리라는바 그일간과보로말하면 조선서 전래하는 고괴보는물론 각국의괴보를 참고삼아서이각정석법(耳角定石法)등한계정을 도모속박 등상세하고 알기쉽게 설명하얏슴뿐더러 됨괴용법하는 여러가지의 신괴보이어잇슴으로써 초화자의 자습서로도 효용잇는동시에 괴계에 뜻을두는분은도 필독(必讀)의잡지다

그안해와 동리사람이 즉시남대문(南大門)세부란스병원에 입원치료식혓스나 동여섯시경에 제발정을어터자리라고 안해가 애원하는소리도 효과가업시 절명하엿다

料理外上진官吏 閻魔簿를作成

市內鍾路署에서一齊調査

綱紀鐵槌내릴前提?

【부락은 모통식이식탁(食卓)에서】 이것은 고금을통한사교술(社交術)의비전인가보다 그런데작금의 경성시내의 술과노래로날을밝히는 료리점은 여전히 황금시대를 즐기고잇다 무슨까닭인가하엿드니 아니나다를가 만흔추태를 로출한 경성부내외사건의입부의때는 실로 이료리점이엿고 흔는현재사직의손에 걸려잇는 이종류의사건도 몸으로양으로 료리점을 무대로하고잇다 이리하야 료리점의문전에는나으리님들의 자동차의출입이자즈면자즐수록 호기심에뜬 세상의눈은빗난다

이러함으로써 시내 종로서에서는 무엇을노지고잇슨지 사업부터오입까지관내의 각료리점 의장부를 일제검사 하야수로관공리로서 외상을 지고잇는사람만전부 조사하야「블랙리스트」를맨드는 한편으로 직원으로서다소 외상을 지고잇는사람은모다청산시켯다 뒤를 니어곳무슨사건에 착수하기위한 전제인지아닌지는 당국자가 입을다물고말하지아니함으로 알수 업스나여하간 료리점 출입이자즌「나으리」들의 불안시대가온것만은사실이다

며누리姦夫를 亂打하야重傷

寡婦며누리둔媤父가

파부며누리와 간통을해서 자식을낫다고남자를구타하야정신에 이상이생기도록 중상식힌 시아바지=김포군양촌면 대포리(金浦郡陽村面大浦里) 채규순(蔡奎純)의집에 머슴사리를하는최황룡(崔黃龍)(三六)은 동리 최주원(崔周元)(六二)의 과부된 둘재 머누라서씨(徐氏)(三〇)와 작년 시월경에 그의친정인 인천에가서「런데부-」(?)를 한것이 공교로히 잉태를하엿다 녀자는일이 창피하게되자 남자더러 락태식힐약을 구해달라고 른차졸랏스나 남자가듯지아니함으로 금번 팔월십오일 드듸어 딸을나어노앗다 파부가 애를나어 집안이창피하게되엿는데 간통이나 그에비되는최황룡은 자식을 맛허가지도아니하려고 함으로 분개한 전기시아버지 최주원은 동리사람을데리고가서 최황룡을 구타한것이 고막이 터지고기타여러곳에중상을입어 밋치는 정신이상까지이르키엇다 그리하야 최황룡의친척의 주선으로 피해자는방금시내청엽정(靑葉町)청엽의원에입원치료중인데고소를제긔할려이라고한다

十八個所炭鑛에 二千名于先移民

咸南北과平安、黃海地方에

三南罹災民處分策

삼남수해민 이주문제에 대하야 총독부사회과(社會課)에서는여러가지로 방도를연구한결과 각지탄광(炭鑛)에우선이천명을이주식히기로 하얏는데 자세한세별을보면함남명천(咸南明川)에 잇는 영안탄광(永安炭鑛)에 일백이십명, 룡현(龍峴)탄광에사백명 계림(鷄林)탄광에일백오십명, 아오지(阿吾地)탄광에이백명, 청학(淸鶴)탄광에오십명, 고건원(古乾原)탄광에일백명, 길주(吉州)탄광에일백팔십명, 함흥(咸興)탄광에오십명문천(文川)탄광에삼십명, 평남대성(平南大成)탄광에백명, 안주(安州)탄광에백명, 강동, 정백, 대문산(大文山)탄광에일백이십명, 강서룡담(江西龍潭)탄광에오십명, 삼신(三神)탄광에칠십명, 평북룡등(平北龍登)탄광에륙십명, 황해도사리원(沙里院)탄광에칠십명 봉산(鳳山)탄광에오십명이라고한다

九月中勞働宿泊 二千四百八十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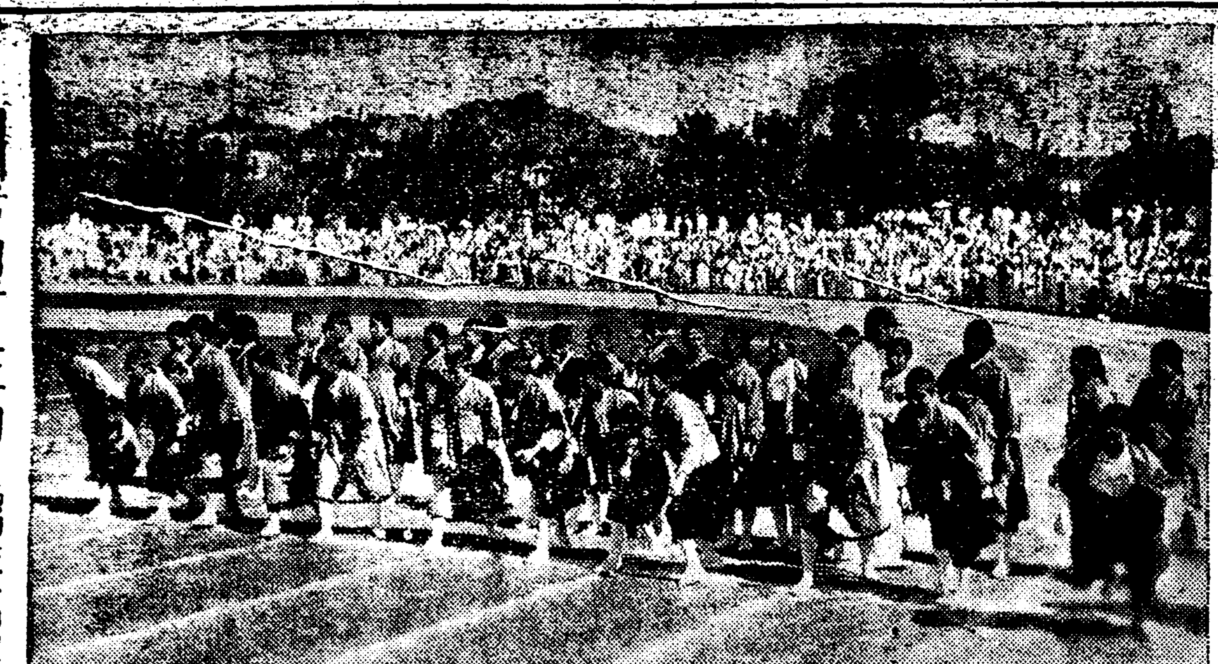
지난구월중의 시내로동숙박소(勞働宿泊所)의리용상황은종게 이천사백팔십이인으로 수영숙박소에는 총게일천사십이인 인데 그중조선인이 칠백사십사인 이고 화광교원(和光敎園) 경성 숙박소는 종게일천 사백사십인 중에 조선인이 일천삼백팔십이 인인바 작년동긔에비하면 총게에잇서서 오백사십륙인이 줄고 조선사람은 이십인이 늘엇스며 일본사람은 오백륙십여인이 줄엇는데 이는 만주경기로말미암어 현해탄건너에서 오는사람은 거의 반수이상이 만주로직행하고 조선사람은 수확기를압두고 농촌노동자가 잘옴즈기지 아니한까닭이라한다

百餘名土兵團이 安東縣下를襲擊

道路工事場合宿所를덥처

四名射殺코放火掠奪

【신의주】 사일밤열한시반경 안동현시가에서 약사십리 가량 되는안동현 제이구대서보자(第二區大西堡子)안관도로(安寬道路=安東縣寬甸縣間道路)공사장일본인여섯명 만주인 이백륙십명이 합숙하는곳에약백명의토병의때가습래하야만주인잡회상을습격한후 현금백원을 강탈하고 청원두명을쏘아죽인후 불을질르고 그녀집으로부터 차례로 습격하얏다 도로공사장 인부들의 합숙소에일으러는 주위를포위하고 안으로달녀들어 일본인감독 소산귀차(小山龜次)(三六)를피스톨로 쏘아 즉사식히고 도망하는일본인을뒤로부터 발총하야 또한명을즉사식히엿스며 만주인 두명도합네명을총살한후 건물 네채에불을질너 진부타게하고 공사용재료약 사천원어치를 략탈한후 오일오전두시경 대오를정제하야가지고 유유히 다라낫다 이급보를접한 만주 경찰에서는 즉시경찰대를 동원하야 현장에 급행케하얏스나 토병단은 벌서 달아난뒤이엇슴으로 그 행방을 탐사 중이라는데 안동현근처요 티구나 삼백명에갓가운 인부가 집단한곳에 이와가튼 토병단이 습격한다는것은 처음잇는 일이라하이토병단은 전일오동배여을습격한일파와가튼게통의마적인듯하다고한다


전매국 직공 운동회 (경성운동장에서)

共黨員九十七名 八道溝에서被捉

反日會員、人民○○軍等

간도팔도구동방(間島八道溝東方)이십리되는횡도자(橫道子)에이일오전 열시경에 공산당십여명이 잠입하야주의 선전에주력을다하고 다시삼일 오후아홉시에동북 이십오리쯤되는 소모대(小毛臺)에공산당두명이잠입하야조선인과 만주인 각일명식을잡아 갓다는보고를 접한팔도구분서에서는 분서장이하 삼십명이출동하야 사일오전 세시경에횡도자(橫道子)를중심으로부근부락을 일일히뒤지어 반일회원(反日會員)등책임자이하구십칠명의 공산당을 체포하고터욱수사중인데 인민○○군(人民○○軍) 소속의공산군림천(林泉)은회녕촌(會寧村)부근에서 폭탄을던진것이므로사살하얏다

목숨도헐하지!

첩못엇게한다고 독약먹고자살

『제발이제부터는첩어더사시요』 마누라청도소용업서

안해가 첩을엇지못하게한다고 음독자살한남편도잇다 시내청엽정(靑葉町)일정목칠번지김우길(金祐吉)(三二)은동일정목오십오번지 리성녀(李姓女)의음식점에 작부로잇는 최숙자(崔淑子)(二三)와 약이주일전부터 정이드러 지내오든중 오일오후네시경에 자긔의 안해리정순(李貞順)에게 전후사정을이약이하고 아무래도 최숙자를 단념할수업스니 첩으로데려다 살겟다고하매 리정순은 안된다고반대를하고 그리하야 부부싸움을한끄테 김우길은 동다섯시경 집에서나오다가문압골목에서자살할목적으로 다량의쥐잡는약을먹고 그자리에 쓰러저고민을 하는것을

도적이제발저려 관재점치다붓들려

공사장에서천여원횡령해가지고 계집데리고노닐든중

(密陽)출생으로 함북라진 간의동(羅津間衣洞) 경남려관(慶南旅館)에 류숙하든 김소문(金小文)(元)은 지난구월중에라진항의륙군용 해안매립지의 부분청부공사를마터 하게되자 동지협성상점(協成商店)기타여러고데서공사가 끗치난뒤에 지불하기로하고물품과 재료를가저다 썻다그뒤 공사가끗나고 청부비를밧기는하엿스나 전기 상점들에지불할 일천님백원을 횡령하여가지고 일일성진(城津)으로 와서 그곳신암동(新岩洞) 윤상운(尹相云)의 음식집에 작부로잇는 조금순(趙今順)(三)을 꾀여경성으로 도망하여와서 시내종로(鍾路)해성려관(海星旅館)에투숙하엿다 그러나 종시마음이노이지아너하든지 사일 파고다공원에 가서『관재수가잇다는데무사하겟나』고점을치는것을 맛침순산경찰의 정(鄭)형사가 수상히터여 동서로 동행취조한결과 전후죄상을 자백하엿다

海底金挾雜에 豫備少將關聯

黃金狂時代의餘波

【東京電話聯合】 금뎡이가드러잇다는「류리호」라는 바다미헤잠긴 배를끄러내기를 목적하고각처에서 만흔사람들에게 수십만금을 후려먹은 협의로그사건을 목적한단체인 동지회(同志會)의내용에대하야 취조하고 잇는 경시청수사제이과(搜査第二課)에서는오일오전 아홉시반에그회의 리사(理事)요 기술부장으로 페합진경(津輕)의 의옥(疑獄)사건에 련좌하야 목하 보석출옥중인 동경세전곡 신정록원(世田谷新町綠園) 예비해군조선소장(造船少將)복정심평(福井甚平)(六?)씨를 소환하야 길강(吉岡)경부가취조하엿는데 이것은지난삼일 부산에서 경시청으로데리고가서 류치중인 관게자 본전소차랑(本田少次郞)(?)을 취조한결과 그회의모든 자금 륙십이삼만원가운데서 배를사고기타에 이미소비한 약삼십만원의쓴곳과「류리호」끄러올니는 기술적방면에 대하야그의 설명이 필요하엿기때문이라한다

水産市場賣買增加

경성부영 수산시장(京城府營水産市場)의 지난구월중의취인상황,즉경성부민이먹은바 생선은 입하(入荷)수량 칠만팔천칠백 팔십팔관중에 매매가액은 십일만오천 사백일원 오십이전이고 십관평균의 가격은 십사원육십오전인바 작년동기에비하면 입하수량에 잇서서는 사천이백륙십관이늘엇고 매매가격은 일만일천오백원삼십삼전이 늘엇고 십관평균의가격은 칠십이전이 늘엇다

基督青年會主催 經濟講演會 元山支局後援

【元山】 원산긔독교청년회주최와 본사원산지국후원으로 경제강연회를 오는십일밤 팔시부터원산진명녀자강습소루상에서 개최키로되엿는데 연제는금후재계대관(今後財界大觀)이고 연사는 현연희전문학교교수 리순탁(李順鐸)씨라는바 원산에 잇서서 듣을게잇는 강연회임과 더욱이 연제가 현하오인의관심할재계의 대관인점에서 인긔는 최고조에달하야잇다고한다

京城府交通調查

경성부도시계획게(都市計畫係)에서는 오는십일 오전여섯시부터동일오후여섯시까지에서내일백개소에서경성상업(京商)생오백명에게 의뢰하야 교통량을일제히 조사하기로하얏다 이것은 삼년만큼식하는것으로그사이의 교통량의 증가여하를 보는것인데이번이 제삼회라고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北中國에잇든 高氣壓은東으로移動하야今朝에는滿洲、朝鮮으로퍼지고日本方面은氣壓이얏다 朝鮮은一般으로日氣가조코 氣溫은 昨朝보다조금네렷다 日本은西國、近畿東京方面은 秋雨가오다明日은天氣가조코리라

氣溫 昨日 最高 一九、五 最低 八、〇 今日 正午 一七、三

運動競技

世界野球爭覇 4A—1 카ー軍勝 虎軍二敗

【세인트루이스五日發聯合】 世界野球爭覇「타이거ー」軍對「카ー디날스」軍의 第三回戰은兩軍一勝一敗의 뒤를니어 五日午後一時四十分부터「스포ー츠」맨파ー크球場에서「타이거ー」軍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A對一로「카ー디날스」軍二勝하얏다 當日은 日氣晴明하야 四萬人을收容하는 大球場은 滿員을이루엇다

가軍 011000200 4A
다軍 000000001 1A

來八日부터 神宮競技 스케ー쥴發表

朝鮮體育協會主催 第十回朝鮮神宮競技大會는 來八日부터十七日까지의十日間 京城運動場其他에서 擧行할터인바 그스케쥴는다음과갓다

◇八日=아式蹴球
◇九日=아式蹴球、硬式庭球
◇十日=野球、럭비ー、籠球、硬式庭球
◇十一日=野球、아式蹴球、軟式庭球
◇十二日=野球、아式蹴球、硬式庭球
◇十三日=入場式(正午) 野球、럭비ー、硬式庭球、마스께임、卓球(京師講堂) 弓道(武德殿道場) 軟式庭球(鐵道局코ー트)
◇十四日=野球、排球、籠球、軟式庭球、卓球(京師) 弓道(武德會道場)
◇十五日=陸上、野球、籠球、軟式庭球 劍道(地方本部道場) 柔道(講道館支部道場)
◇十六日=陸上、野球、排球、籠球、軟式庭球
◇十七日=陸上、野球、排球、籠球、軟球、씨름、마스께임、卓球(京師) 弓道(武德會道場)

野球對陣決定

◇各道對抗之部
【第一回戰】
A遞信…朝窒(十二日午前九時)
B大田…咸興(十三日午前九時)
C大邱…春川(同 正午)
D海州…平實(同 午後三時)
E全州…釜山(十五日午前九時)
【第二回戰】
A의勝者對B의勝者 (十五日正午)
【準決勝戰】
D의勝者對E의勝者 (十六日九時)
C의勝者對AB의勝者 (十六日正午)
▲決勝戰은十七日午後三時

◇中等校之部
A京師…平中(十二日午後二時)
B京中…釜商(十四日午前九時)
C木商…仁商(同正午)
D京商…釜中(同午後三時)
【準決勝戰】
A의勝者對B의勝者 (十五日午後三時)
C의勝者對D의勝者 (十六日午後三時)
▲決勝戰은十七日正午

◇專門校之部
A高商…醫專(十二日正午)
【決勝戰】
城大豫科對A의勝者 (十七日午前九時)

對米野球戰 六大學은拒絶 日本軍陣容

來十一月初旬 日本에遠征하는 米國職業野球團은 東京、大阪、名古屋、靜岡、大宮、仙臺、富山、函館等地에서 模範試合을 할터인데 이番과의相對팀에對하야 六大學野球聯盟에交涉한結果 聯盟側에서는 이番拒絶하엿스며 文部省에서도 아마추어스포ー츠擁護의立場으로보아 學生團과職業團과는 試合을防止할方針이라한다 그럼으로 東京職業野球團을組織하야 日米野球戰을擧行하려고하엿스나明治神宮外苑野球場使用規約에잇는『興行이라고認定할케입에는貸與치아니함』이란條目에依하야 日本職業團으로도對戰키難하야 不得已全日本選拔軍을臨時로組織케되엿는데 그陣容은 將來職業選手로드러갈選手를中心으로하야 此試合에만單獨參加할選手를加하기로된바 그一員으로 李榮敏君이選拔된것이다 이번對米野球戰에出場할第一次詮衡選手는▲投手 伊達(早) 濱崎(慶) ▲捕手 久慈(早) 倉(法) ▲一壘 村井(早) ▲二壘 三原(早) ▲三壘 加藤(慶) ▲遊擊 苅田(法) ▲外野 李榮敏(延專) 二出川(明) 井野川(明) 中島(早) 夫馬(早在) 角谷(門鐵)等이며 中學選手로는 京都商業의 澤村、旭川中學의『스타힌』(露人)의兩投手 長野商業의 鈴木捕手等이有望視된다

西洋生菓子 直時配達 本町 金剛山 電本 四二四五

補精强壯劑 大阪朝日新聞報導轉載 衛生課에서實驗證明한學說

大阪朝日新聞報道(轉載) 衛生課에서實驗證明한學說公開 淫羊藿은 支那一部와 平北에서만 野生하는貴重한藥草로古來로부터 上流家庭에서貴重히使用하든藥으로特히補精强壯劑로驚異的効能을 發揮함은一般醫學界에서周知하든 事實이든바 (最近에白石警察部長 自身이淫羊藿엑기스를實驗한바참으로놀낼만한特効잇슴을證明하얏슴으로目下衛生課에서는(모로못도와) 家兎에게淫羊藿엑기스를與하야實驗한結果其効力이驚異的으로顯著함을證明함) 補精强壯劑로 널리紹介하면實驗한効力의依하야 朝鮮人蔘을壓倒할時期가不遠하리라思함(以上은衛生課에言明)

第六回日本藥理學會에서發表한學說

[illegible]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幽玄神秘의 漢方醫術과 現代醫學과의 完全融合에依하야創製된劃期的興陽强壯劑

世界的靈藥 淫羊藿엑기스錠

主治適應症 房事過度、手淫、早漏、遺精、夢精、男女不感症、性慾減退、腎氣不足、補淫補陽精力增進、性的神經衰弱、消化不良、貧血、冷性、健忘症、食慾不進、百藥

價二十五日分五圓、六十日分十圓、三十日分貳拾圓

製造元 京城公平洞八八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八九二 電光一三五六
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本町 木村藥房

16ミリ 出張撮影 岡本映畫部 TEL.2348

時計完全修理 京城鍾路二丁目 普信堂時計舖

夏期男女學生大募集 (二銭切手添付學則請求次第進呈)
朝鮮第一自動車學校
京城府太平通二ノ四〇番地 大漢門越便 (電話本局四〇六八番)

登錄商標 新生薑
販賣時期=(陽十月十五日頃 陰九月初旬頃)
全羅北道特産品 鳳翔生薑指定取扱人
社團法人 鳳翔産業組合
全羅北道全州郡鳳東面 振替京城二〇、〇五八番

오늘의말슴
사책과여행

『성시(聖詩)도 도라가라!』는말은 십륙세기 로-마교회(敎會)가 속화(俗化)되여가는데 대하야『루-터-』등 종교개혁자(宗敎改革者)들이 웨친소리요 『자연(自然)으로 도라가라!』는말은 십팔세기 불란서 구왕조문화(佛蘭西舊王朝文化)의란숙기(爛熟期)에잇서서 『루소-』가 부르지즌말이지만은 자연과 친하는것은 인류가 업지못할 가장 중요한것이 안일수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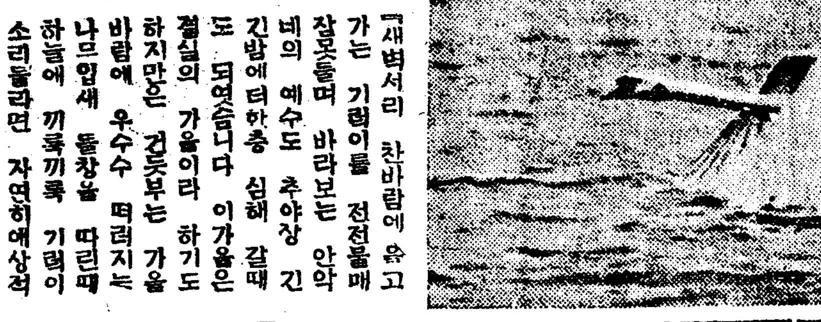
그러나 도회인은 풍진의 도시를 떠나자연미에 도취될시간이 항상적은것이 크게 유감된 일이다 더구나 조선의 가정부인은 매일매일 쫏기는 집안일때문에 혹은 들로 혹은 산으로 혹은 시내ㅅ가로 산보할 시간을 갓지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도시간적으로 여유가 업스니 마치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발길을 옮기지못하고 또한 명승고적(名勝古蹟)을 찾자승경(勝景)과 고문화(古文化)를 더듬어보지 못하는것이 사실이다이리하여 시야(視野)는좁아지고건강은 약해지게 되는원이하도 만흔것은 우리가 늘목도하는바이다

우리는 특히 녀성은 가정에 드러안저서 일을 만히보게 되는고로 이러케아츰저녁으로 산보하거나 또는갓가운곳이나 먼곳에려행할 시간과 경제가 허락되지 안는다고 하드래도 어느한계의 구실할이오 시간의 배정을 잘한다면 아츰저녁 산보쯤은 누구나 할수잇슬것이오 또 일주일에 한번쯤은 머지안혼곳으로픽닉(들노리)을 할수도 잇는것이며 때로는 먼명산대천과 명승고적을 차저발길을 옴길수도잇는것이다。

우리의 녀성은 문화상으로세계수준에 비견되지못하고 또 민족보건으로 보아 그러케 우수한 육체를가지못한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문화적으로 뒤떠러지고도 육체상으로 건강치못한 이 조선의 녀성이 어머니가되는때에 그어린이는 어떠케 할것인가?이는 민족 보건문제로보아 크게우려할일이어니와 우리의 조선녀성은 특히 자연과 친할 긔회가 적은 도회여성은 아츰 저녁으로 신선한 공긔를 차저 산보도하고 또 때로는 쉬는하로ㅅ날을 정하여 머지안흔 산수잇는곳으로 하로의산책(散策)을 하므로써 새로히 기분을 전환하야 심신의쾌락을 어더야 할것이다

이것이 우리 조선여성이 명심할 한가지 중요한것이라는것을 말해둔다 (一步生)

가을하늘에나르는새들 (一)
새벽서리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오동닙이 떠러질때 조선에도 차저온다



『새벽서리 찬바람에 읇고가는 기럭이를 전전불매 잠못들며 바라보는 안악네의 예수도 추야장 긴긴밤에 더한층 심해 갈때도 되엿습니다 이가을은 절실의 가을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건듯부는 가을바람에 우수수 떠러지는 나므닙새 돌창을 따릴때 하늘에 끼룩끼룩 기럭이 소리들라면 자연히애상적 긔분이이러나도 속일수업는감정이외다

그러면 이가을 하늘에 울며 울고가는 기럭이는 어떤 동물일가요? 기럭이는 그종류가 일곱이잇는데 참기러기(眞雁)적은기럭이(小雁)마름먹는기럭이(菱喰)역안안(逆顔雁)검은기럭이 (黑雁)흰기럭이 (白雁)함미새기럭이 등이라 합니다 그런테이중에도 조선에 제일 만히오는기러기는 참기러기 마름먹는기러기역안안(逆顔雁)와 세종류입니다 이기럭이나 물오리는 나제는 고요히 물우에 쉬고잇다가 저녁때가 되면먹을것을차저이물우에서 하늘로 혹은들로 날릅니다 그리고는

밤울역에 다시엣집으로 도라오다가 못안인 새냥군에

니다

△

기럭이의 종류는 이러케적으나 물오리는 삽십종이나된다합니다 우리들이항상 보는것은 참물오리인데 이것은보통 종류의것입니다

기러기나물오리의 종류는 예로부터 고기가만코 또 그맛이 조아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새냥을 하는데 먹는인간은 조겟지만 이 창공을 나라서철을알려주는 기러기나 물오리를이가치 잡는것은 너무도인간이 무정한것이 안일까요?

가을도기퍼가는데 기러기 소리를들을때도 머지안엇습니다

우리는 이기러기나르는가을에무엇을 할까요?

(사진은 들거위)

百萬弗의 고명딸
男便감(求하려) 世界旅行
『但숫색시는아니올시다!』

일본우선룡전환(日本郵船龍田丸)는 오백이십이명의다수한선객을실고 이십칠날오후여섯시에 횡빈항(橫濱港)에 입항하엿는데 그선객가운데는 금년 겨우십칠세로 네번재남편삼을골르는중이번에만난남편노또뜻이맛지아니하야 『마니라』에잇는어머니한테로 도망해간다는 돌돈녀자『코레드말비엘』양이 상확하얏다 양은 미국『펜실바니아』주『빗스버』의백만장자『갈푸』석유회사장(石油會社長)『토-마스말비엘』씨의 외딸도명녀이면 아부지의재산을 그대로양도바들 다복한녀성이다

그런데 이년전 어떤날밤『파-티』에서 『토마스·그린』군을 서로알게되자 그야말노 초스피-드로 그이튿날 곳 결혼식을 거해하야 세상을 놀내엿다 그러나 『엇전지 사랑을 늣길수업다』고이때 것 려행으로 살아왓다 최근에잡간 아부지한테 머물려잇다가 약반년전부터 『마니라』에별거하야잇는 어머니한테로갈려고『샌푸란시스코』까지 비행긔로도망하야서 다시『라-스』호로『하와이까지왓스나 그의아버지는 경찰에수배하야 곳집으로잡아왓다

양은 아부지한테 라와서도 『마니라행은중지한다』고하야 집안사람에게 안심식여노코 그틈을타서 이번에『마니라』행을단행한것이다

양에게『웨십여젓소』하고 물으면 『사랑을늣길수업스니까요』 백만불을어드면? 에-전부려행에다 소비할까요。 나는 미국사람중에서는듯맛는남편을구할수업서요、구라파나 그러치안으면 동양에라도 조흔곳만잇스면…… 엇떤 리상이 맛는사람이면 엇던사람과나결혼하지만 그때까지는 려행하렵니다』양은마니라에 약일개월난체류하고는 일본에들녀서 한두주일간 관광하리라고한다

사진은『코레드』양(上)과 첫남편『토맛스』군(下)

『지난해에왓든곳!』

DK에서
滿洲語講座開始
本月九日부터三月間

라듸오의청취자는 나날히격증하여가는중에 특히조선사람의가입자가 근래에이르러 비상히만허짐으로 경성방송국제이방송과(第二放送課)에서는위안(慰安)및교양(敎養)과목에대하야 조흔프로그람을 만들고저 더한층고심하고잇다는데 작금반만주국(滿洲國)에대한 일반의관심이거대하여짐에 감하야 다시 본월구일부터 삼개월예정으로(매주화、목、토 삼회씩 오후여섯시이십오분부터삼십오분간) 사계의 권위장지영(張志暎)씨를 강사로고빙하야 최신만주어강좌(最新滿洲語講座)를 개강하기로 되엿다한다 이에사용할 교과서는 강사 장지영씨가 전번의경험에비추어 열중머리를 써서편찬한것으로서 내용이매우충실할뿐터러 이책한권만 떼면보통 만주어는 능통할수잇도록요령잇게꾸민것이라한다、더욱책갑은경성방송국에서실비제공으로우세(郵稅)사전(四錢)을합하야 이십사전씩이라하며희망자는직접방송국으로주문하기바란다고

들린다 시게소리
여섯시 치는소리
아버지 가방끼고
일갓다 오실시간
봉녀야 너두가자
차길로 마중가자
어머니 밥이끌우
불불리고 상보우

글쓴사람 (왕방울)

童話
까치의지혜
車 斌 均

생선장사가분주하게、산ㅅ길을지나고잇슬때엿습니다。공중에서 날르고잇든 까치한머리가 땅우에 하-얀것이떠러저잇는것을보앗습니다。무엇인가하구 이상히 역이고까치는 공중에서 날어내려와서 자세히보니까 그것은 생선장사가 떠러트리고간 펄펄뛰는 숭어한머리엿습니다。

그래 까치는 『야!이거웬떡이냐!』하구 기뻐서 숭어를두발로、단단이 움켜들엇습니다

이때에 어디서인지、시꺼먼 까마귀한마리가、까옥까옥날러오드니、

『여보 까치님! 그숭어는내가먼저보아둔것입니다』하구눙청스럽게 거즛말을하고 까치에게대들엇습니다。

『아니요 이것은내가어든것입니다』하구 까치는 깜짝놀내서 변명하엿습니다。

까치하고 까마귀가 금방붓들고 싸우려할지음에 이번에는 크다란독수리한머리가 날라오드니

『나는 이여때 숭어한머리를 노아두엇는테 너이들보지못하엿느냐?』하구 날칼로운발톱을내노코 위협하는듯이말햇습니다。

까치와까마귀는 여간놀내지 안혓습니다。 싸움을한대야힘센독수리가 이길것은 틀님업습니다。 그래서 까치는한꾀를 내엿습니다。

『독수리님은 이숭어를 여기 노아두섯다고합니다。 까마귀님은 나보다먼저보앗다구합니다 그러나 현재 숭어를어더가지고 잇는것은나올시다。 그러니 제각기 이숭어가내해라구주장할 리유가 다-잇습니다。 그러라구 이러케 서로 다툰대야 끗말이업슬것이니 이숭어를밧가운테가 파무터두엇다가 내일 아츰 누구던지 제일먼저차저 내는사람이 이숭어를먹기로하는것이어떳습니까?』하구 까치는 의견을내엿습니다。

이말을들은까마귀는 『그것좃습니다』하구 대답하엿습니다。

까마귀는 까치보다먼저일어날 작정이엿습니다。 독수리도 『그것 괜치안소』하구 찬성하엿습니다。 독수리는 누구보다도먼저 일어날자신이 잇섯든것입니다。

그래서 까치는 숭어를밧가운데파무터노코

『자!여러분단단이 보아두시요 이곳에 파무덧습니다』하구 숭어무든자리를 가라첫습니다。

넓으나넓은 벌판이여서 밧가운데어느고데다 파무덧는지 독독이머리에 삭여두지안허서는 아츰에찻기어려울것입니다

그래 까마귀는 무심결 공중을 처다보니까 바루자기머리우에 힌구름짱하나이떠잇는고로

『올타、나는이구름짱을 표삼어두겟다。저구름짱아래다숭어를 파무더두엇스니까……』하구、생각하고기뻐하엿습니다。

독수리도 무심결도 하늘을 처다보앗습니다。

그때하늘에는、중천에태양이번쩍이고잇섯습니다。 그래독수리는、속으로

『저 태양미려 숭어를파무터두엇스니까、태양을표상으면、틀님업다』하구생각하엿습니다

까치는、숭어를파무든곳에서 동쪽으로십메-틀쯤가서 옷독 서잇는바위를표상어두엇습니다。

『내일아츰저、바위를차저와서 서쪽으로십메-틀걸어가면숭어가잇스리라』하구생각하엿습니다。

이튿날아츰이 되엿습니다。

까마귀는、누구보다먼저일어나 힌구름짱을차저나려갓습니다。 독수리는 아츰에태양이떠오르는곳으로날아갓습니다。 까치는 밧가운데、옷독서잇는바위로날아갓습니다。

자! 여러분! 숭어를누가 맛잇게먹엇겟습니까? (끗)

가정의학
아이일까요?

問 저는이십삼세된 처녀입니다 약반개년전에 약혼하야 남북으로 갈니여잇습니다마는 때때로 맛납니다。 아즉 약혼시긔인만큼우리는서로 깁흔관계는 절대로 주의하야왓습니다 그러나 약삼개월전에 그남자가 와서(그때는월경이 잇슨지오일오후엿습니다) 깁흔관게는주의하면서도 전번거절할수업서 서그이가 질밧게서 토정한듯 한후 지금까자 삼개월간월경이업습니다。 정당히 정교를 아니하얏스니 처녀막도 그대로잇슬터인대 잠시흥분으로 질밧게서 토정한것으로 인하야 임신되겟습니까? 젓꼭지가 좀커진듯십고 기분은 조금도 다름이업는대 임신아니고도 삼개월이나 월경이업는 일도잇습니까? 전에는 달달이한번도 불순한일이업섯습니다。 합리하게정교를 하지아니하엿스니 임신이되면 남자가 암만하야도 의심할듯십허서 가슴이 압흐고 답답합니다 그때에는 엇더케표시하는것이 제일좃켓습니까? 대구동산정 일녀성

答 설혹질밧게라하야도 임신되는수가잇습니다 당신은 임신이확실한것갓습니다 만일그남자가 의심을하는때에는 과학적으로 그남자와당신두분의 자식인가 아닌가를 알어낼수가잇스니 별로걱정할것업습니다

(大學病院產婦人科金錫煥)

기다리든오늘
朝鮮日報 學藝部 主催

八時以前이면 驛頭에서도 申請接受

家庭婦人『들노리』大會

깃거운날이왓습니다 會員되신분은 아츰일즉이해잡수시고 八時二十分까지 淸涼里驛압호로 모이십시요

時日 十月七日 (日曜日) 아츰 八時二十分까지 淸涼里驛前으로 會員들은 모입시요 그래다가 九時二十二分車로 떠납니다 이날 雨天이면 翌日로밉니다

場所 議政府 (고든골) 九時四十六分에 議政府着、驛에서約三十分만거르면 녀뎌한테 밤나무가만코 景致가 조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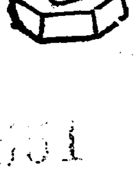
會費 七十錢 (一人에) 會費만내면 車삯낼필요가 업습니다 『벤도』만 가지고 오시면됩니다

入會資格 勿論 女子에만限하며、어린애들은 다려고오지마십시요、기어히 다리고오실경우라면 會費를따로내십시요

餘興 밧줄기와 상품주는 경기며 기타 여러가지가잇서 하로를 즐기기에 충분한준비가 되여잇습니다

申請 十月六日까지 入會申請은十月六日 午後四時까지 本社 庶務部로 會費를내시고 會員券을 바드십시요

其他 當日로 도라올터인데 議政府發은 午後四時十八分 淸涼里着 同四時五十六分、驛頭에서 解散합니다



十月七日 (日曜)

◇午後六時(東)管絃樂(解說付) 一、玩具의交響曲…하이든作曲 二、交響曲…第六番 第二樂章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近衛秀麿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精神文化에對하야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平調會像 二、吹打 三、興民樂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東) (臺灣으로부터) 一、揚琴獨奏 『譜』鮮花調 『曲』十二花名 劫良 後絃伴奏 黃章田 二、臺灣歌謠曲 (가)閨女嘆 君玉作詞·謝辣作曲(雪鶯) (나)落霞孤鶩 臨秋作詞·栗峯作曲 (靜韻) (다)汝害我 同· 雨賓作曲(同) (라)落林的黃昏 君玉作詞·同(式溪) (마)姉妹心 芳夢作詞 同 (雪鶯)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三、唱劇詞 瀟湘八景(沈淸傳中) 金昌龍 鼓手 丁元燮

◇同九時 獨唱과오토하-프 (가)主는나의牧者요 리들作曲 (나)讚美混成曲 (다)나의손을붓잡고 브릭스作曲 二、오-토하-프 安大 피아노伴奏 부-쓰夫人

十月八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大笒獨奏 一、신아위 二、새타령 朴鍾基 杖鼓 池龍九

◇同四時〇分 衛生講座 婦人病에對하야 (三) 醫學博士 許信

◇同九時 兒童劇 正義의노래 全四景 『配役』 兄……李末男 弟……朴淳榮 隣國의王子……李東亭 洞里아이셋씨…… 安永昌 使臣……廉相溢 其他洞里아이들·兵士들·隣國의兵士들 新鮮어린會 指揮·李河宗

◇同七時三〇分 講話 社會敎化에對하야 (一) 京畿道囑託 曺元煥

◇同八時 時調와俗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遊山歌 三、博物歌 四、錫劍歌 五、은실打鈴 館牧丹 金蓮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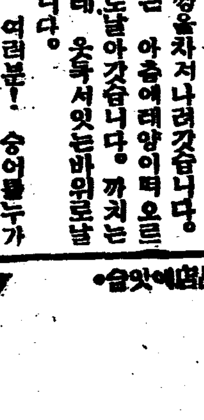
◇同八時三〇分 連續講談 銀臺 (一) 興秋閣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박타령 朴綠珠 鼓手 韓成俊

著名百貨店·藥局·洋品店·化粧品店에잇슴

美와魅力의 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內務省衛生試驗所無鉛證明

秋陽十月

『自然과 女性美』의 潑溂한 運動을보라! ×

본살결그대로인 당신의 美貌도 近代的스피-드白粉 タンゴドーラン으로!

タンゴドーラン七色

固形タンゴドーラン

日本總發賣元 株式會社 メール本舖 東京·大阪

對米關係五十年史
駐米最初朝鮮公使
湖岩

橫濱에서華盛頓

【朴】公使는 橫濱에서 發船하든 그前夜에 香港잇는 閔泳翊으로부터 電報를 接受한바 그內容은 駐歐公使趙臣熙가 이미 香港에 到着하엿다는것인데 朴公使는 이電報를보고 趙公使와 서로 欣握하지 못하는것을 恨歎하면서 翌日에 出帆하엿다 朴公使가 出帆할때 東京과橫濱에서 船上에까지 餞送하는 內外國人중에 駐日朝鮮署理公使金嘉鎭이 잇섯스니 第一代駐箚日本辦理大臣 閔泳駿이 丁亥六月 東京에到任하얏다가 八月 京城에歸朝한後 稱病不赴함으로 【參】書官金嘉鎭이 署理의 任務를 보든것이다 (閔商鎬從臣錄)

朴公使의 搭乘한英船『澳順號』는 太平洋을 橫斷하는 巨船이니만치 그長은 百步각가이 되고 그廣은 三十餘步가 되엿다하니 濟物浦에서 長崎까지 라고온 美艦『오마하』號에 比하면 거의倍나 크다 橫濱에서 桑港까지 무릇十九日이 걸렷는데 그동안浩浩茫茫한水天一色의 大海原에 떠운船旅生活은 單調하기 짝이업스나 오히려 각금西洋船客들의 蹴毬運動하는것을 바라보는 興味를 느낀일도 잇섯스며 어느때는 兩洋男女가 서로 껴안고 【舞】蹈하는것을 구경하고 異常하게 녀겻다 十一月初二日에 珊瑚島에 이르러 東西兩球의 時間標準이 밧귀여 朝鮮과 美國의 晝夜가 相反되는 듯하고 그것을 日記에 論評한後 初二日을 疊用한것도 公使에게는 新知識을 體驗한것이며 또하와이에 이르러는 盛炎에 맘놀곱니며 世界는 廣大하야 新奇로 比할수업다고말하엿슬뿐아니라 公使는「하와이」가든小島嶼가 오히려 能히 萬國사이에 獨立帝位한것을 目睹하고 놀라엇다「하와이」에서桑港에 到着하기는一週後인十一月十四日上午八時인데 檣頭에 大韓國旗를 高히 내여걸고 배는碇泊하엿다

【橫】濱으로여기까지 이르는 一萬六千餘里水路(三路中最遠距離로 汪邈하엿음)에 아주 疲困하게된 同船三等客中에痘疫이發生하야 上陸을 許하지안음으로 船中에 四日동안잇섯다 그리다가 十八日에가서 海關에서朝鮮公使의 搭乘한關係로 一等船客만은 上陸을許하니 그네船客들이 公使의恩澤을 感謝하는듯으로 萬歲를 高唱하엿나 하거니와 이날은 西曆一八八八年 一月一日이엇는데 桑港마켓트街第二十八番地『팔레이쓰호텔』에 投宿하엿다 同『호텔』은 高이八層에 房이 千餘間인데 男女使喚이 五百名이고 每日旅客이 一千餘人이 되며 三時食事並一日宿泊費는 그때 金貨로 上等은十元 下等은三元이라고竹泉日記에 적혀잇다

【十二】八日(西曆一月二日)에 桑港駐在十六個國領事中에 朝鮮과 이미通交를매즌 日淸英德法義俄領事와 本州知事와 同市長및稅關長二人에게 朴公使가 名刺를 보내엿드니 그翌日에는 淸國總領事와 關領事가 名刺를 朴公使에게 보내여 謝禮하고 日本領事는 朴公使를 來見하엿스나 通譯이 업서서 서로接語치 못하엿스며 本港稅關長二人과 同市長과 鐵道會社專務와 法國領事가 차저로 朴公使를來訪하엿다 紐育에잇는 朝鮮總領事『프례이저』(……)는 美國人으로 一八八三年 癸未十二月에 漢陽朝廷에서 【在】紐約總領事로 任命한者니 이때電報로써 公使의 來着을 探問하엿든바 公使는 매우 滿足히녀겨 그에게 곳 答電하야 謝意를 表하엿다

廿一日에『삭크라멘트』會社의 急行列車를 타고 華盛頓을 向하야 出發하니 桑港에서 무릇 七日程이며 車賃은 每人分에 八十九圓七十五錢씩으로 定하야 一行十人이 便宜上 三等一室을 온통 買收하야 한가지로 居處하엿다 그리하야 三次換乘한後 米大陸을橫斷하야 一萬五百里되는 【華】盛頓停車場에 到達하기는 同廿六日이엿는데 第十四街一百六番地『……』旅館에 投宿하엿다

朝鮮語硏究의本領
外來語의淸算과新語의創作
(二) 洪起文

그러나 도―데―는 오죽자긔네의말을固守하야써 자긔네間의結合을鞏固히할것이라고說敎하얏을뿐이지만 朝鮮의도―데―宗旨은 朝鮮語를改造하야써 그固守를徹底히하려고하얏다。이勿論그들이 도―데―보담도 一步를더내어드듸인바로되 이오히려言語上도―데―이合의破綻을意味한다。그런대도 대처엇재서鮮語의改造를 그

徹底한 **固守** 로써 同一히評價하고잇는가? 아니그들은 果然그어떠한方法의 改造를 强行하려고하는가?

◇

첫재로 外來語의淸算이니固有의純粹한朝鮮語、朝鮮人의先祖가맨들어가지고 傳해쓰든朝鮮語、朝鮮人의血統과한께 또는 朝鮮의山川과한께 길드른朝鮮語、그러한 朝鮮語의保護를爲하야 一切의 外來語를 拒否또는 除去하자는것이다。옛날英國語에서도 外來語의淸算運動이잇섯고 또요前者大戰當時獨逸에서도 敵國프란스語의淸算運動이잇섯는것으로 決코朝鮮의새로운 現象이아니다 만은 이미 英獨의 例로 미루어 그失敗를 立侯할수잇는것으로 아까운徒勞가아닐까 생각한다。根本그말이어느나라어느種族으로부터

由來 되얏든지 이미朝鮮語에들어와잇는以上 그것도한個의朝鮮語가아닐까? 萬一事實上 固有의純粹한朝鮮語를 찻는다면 먼저 朝鮮語라는한言語를構成하얏슬當時의그言語를考證的으로밝히고 그다음그以外의 外來的言語를 全部排斥하여야할것이아닌가? 勿論우리의 祖上들은 所謂假語를輕侮하고 漢文을尊崇하야 오늘날朝鮮語로하야금 적지아니漢文化하야 노핫스나 그러타고 그漢文化되기以前으로 朝鮮語의歷史를 逆轉시킬수도업고 또逆轉을要할까닭도업다。現在英國人이 使用하고잇는英語中에는 그七分之五가 外來語라고하지만 英國人들은 오히려過去의淸算運動을아지도못하는듯 何等의不便과未安을늣기지안는모양이다。

◇

둘째로 新語의創作이니外來語를

淸算 키로하고 그適當한代用의 固有한朝鮮語가 업슬境遇 固有한朝鮮語를가저 新語를 맨들어내자는것 이다。人類의 文化가進展할사록 새로운事物과思想을發見키에이르고 새로운事物과思想을表示키爲하야는 새로운概念이 要求되고 새로운概念에應하고자 새로운말을 創作하게될것은 事實이지만 이미어떠한말로써 充分히表示하고잇는그것을 다시生硬한딴말로써밧구에쓴다는것은 不必要한努力인同時 不可能한努力이다。今後우리는 朝鮮語의內容을 좀더豐富히하고 좀더潤澤케하기爲하야 歐米의各國語라도 必要잇는대로直輸入하지안하면안될것이다。歐米의各國語하믈며 數千年來그文化에젓고 그文字에길든漢文에이르러야더말할것이업는것이다。露西亞의 뚤게네프는 露西亞語가 外來語를잘同化식힌다고하야자긔네말의 偉大性을 읍조리엇는데 그와反對로 朝鮮서는 固有한朝鮮語를에워싸고 그封鎖政策이如意치못할까를怯내고잇다。구태어자긔네말의 偉大性을읍조리어서 區區한讚揚을올릴것도업스나 자긔네의말을封鎖하려는이보담은 멘갑절進步的이라고보인다。『大陽』이漢字로된말이라고하야 『날레』라고고치자는분이 잇섯다니 그러면『太陰』은 『밤레』라고 고치어야할것이란말인가? 朝鮮語의硏究도 이地境에다다르면案上의文筆遊戱와 그무엇이다르리요。

黑雨가나린곳 瑞市의怪天態

瑞노스아이레스市에 대낫에黑雨가 나려市中은全혀 밤과가티 컴컴한채로 밤이되여버린 珍現象이 이러낫다。빌딩에는 夜間과가티 電燈이 輝煌하고 住宅도 電燈을켜서 自動車는 헤드라잇을키고 街路를疾驅하는等 奇觀을呈하얏다 더구나 이때의비는 暴風、落雷를겻드려 電信線、電話線도 切斷되리만큼 猛烈하엿는데 黑雨가온다는것은 不可思議한일로 뵈노스아이레스氣象觀測所에서 分析한結果 비의成分은 燃燒한炭素와 燃燒지안흔石油의微粉分子라는것을아러냇다 原因은아마數日前에 附近의 감바나에서 石油탕크가多數爆發하야 約一週間에亘하야 탄일이잇섯는고로 그까닭이라는 말도잇다

第九回極東熱帶醫學會
三日南京에서開催

【電通南京三日發】第九回極東熱帶醫學會는參加十四個國出席會員三百名으로 三日午後當地에서 開會되엿는데三日은單히 汪精衛、黃紹雄氏等主催者側의 式辭及招宴으로終了되엿다 日本側의出席은今村博士以下二十一名이다 四、五、六의 三日間會議를續行하고 七日南京을遊覽하고八日閉會式을擧行 九日早朝

一、津浦線으로北平에
二、汽船으로重慶에
三、自動車로杭州에

의三路에分하야內政部衛生處의 案內로地方을見學하고 散會할 遂定이다

藝術과自明한것 (1)
오―ㄹ더쓰·헉쓸리
金泰煥譯

藝術作品에잇서서 大衆이要求하는것을 그들에게 주기를拒否하는現代藝術家에對한抗議

모―든偉大한眞理는 自明한眞理다。그러나 自明한眞理가 모다偉大한眞理는안이다。이리하야 人生은짧고運命은不定하다는것은 어대까지든지眞理다 幸福은

自己自身 에依存하는것이요、外的環境에依存하는것이안이라는것도 떡으나自明하다。

어버이는 一般으로그들의子女를사랑하고 사내와계집은여러가지樣式으로 서로牽引하는것도自明하다。大部分의사람이田園을조하하고 自然의形形色色으로變化하는光景에依하야 高揚과畏怖와柔和와愉快와憂鬱을늣기는것도自明하다。大部分의 사람이 그들의家庭과故鄕에그리고 그들이어릴때에배운信條와그들의種族의 **道德律**에 執着을늣기는것도自明하다。모―든이것들은自明한眞理요 그리고 모다가偉大한眞理다。그는그들이 普遍的意義를가지고잇기때문이다。人間性의基本的特質에關한 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다른種類의自明한眞理가잇다。則永遠한意義가缺乏하고、人間性의根源에아모런關聯도가지지못하야、偉大한眞理라릅을수는업는 自明한眞理가잇다。이러하야 얼죽이그곳에 싸다온사람의게나、멀니서그곳에對한이야기를들은사람에게는 뉴―욕에는 無數의自働車와 **摩天閣**이 잇다는것은自明하다。을에는夜會服이걸어젓고 紳士나、놉고、푸른연 카라를 하는사람이 別로업다는것은自明하다。런던에서 파리까지두時間半이면 飛行機를타고갈수잇다는것、「土曜夕刊」이라는定期刊行物이잇다는것、地球가둥굴다는것、리굴리―氏가 쥬―잉검을만든다는것은自明하다。이것들의自明에도不顧하고、엇젯든現在에잇서서는―길고짜르고간에全然夜會服을입지안코、自働車가「에레호―」에잇서서의機械와가치 **博物館行**의骨董品이될時代가올는지도몰으니까――이것들의眞理는偉大한 眞理는안이다。이것들은 人間性이 그의根源에 잇서서아모―런 變化도 밧는일이 업시 眞理이기를 끈칠지도몰은다。

民衆藝術은、現代에잇어서는 드種類의自明한眞理則偉大한自明한것과 가티、卑小한自明한것을 取扱한다。卑小한自明한것은(隱健히計算하야)現代의小說과 講談物과 映畫의大部分의題의

半數를占 하고잇다。民衆은 그들의게 親熟한對象이나 環境을單只再認識하는데서非常한 快樂을 吸出하는것이다。

大衆은 그들이 살고活動하고 그날그날의生活을 하고잇는世界와는 달은딴世界에서 그主題를 끄러내온 純粹한 空想의作品에는 얼마쯤 不安을늣기는傾向이잇다。映畫는 만흔實際의 포―드自働車와 眞正한 巡査와疑心할수업는 汽車를가지고 잇지안으면 안이되다。小說은普通男女가 가장熟知하고잇는 確實이저房 저街路 레―쓰토―랑 商店 官廳에對한진 描寫를包含하여야한다。各讀者나 各觀客이―實로確乎한滿足을가지고―『아―저게정말 포―드自働車가잇다、저것은 보리―운의巡査가잇다。저것은 應接室이다。』말할수잇지안코면 안이된다。認識可能性 이야말로 大部分의사람이 深甚한 感動을 發見하는藝術的性質이다。

그러나卑小한 自明한眞理가 一般大衆에依하야 鑑賞되는唯一의自明한것은아니다。大衆도또한 偉大한 自明한眞理를要求한다。大衆은藝術의供給者로부터 아들의게對한어머니의사랑에對하야 政策으로서의正直의 **善眞性**에 對하야 大都會에서오는觀覽客에게 自然의繪畵的美에依하야 産出된高揚的效果에對하야 政策結婚보다도戀愛結婚이優越하다는것에對하야 人生의짤음에對하야 初戀의美等에對하야 가장正確한記述을주기를要求한다。

藝苑 포스트
作品剽竊의非行을戒함
市內 林晦春

近來 文學靑年間에는 作品剽竊의 犯罪行爲가 頻頻함을 發見할수잇다。이것은 特히 우리朝鮮文壇에서만 볼수잇는것이아니라 일즉이 外國文壇에서도 이러한例가 非一非再이엿슴은 文壇人으로는 누구나 否定치못할事實이다 그러나 作品剽竊은 다른物的犯罪보다도 더容恕치못할罪狀이다。남의作品을剽竊하야 自己의名義로 發表하니 이얼마나 大膽無恥한非人格的行爲이랴? 아모리남의作品을 巧妙히 剽竊한다할지라도 敏感한讀者의날카로운觀察에는 그假裝된鍍金이 暴露아니될理는萬無할것이다。

그런데 그作品剽竊의方法을보건대 오래된 남의作品의 題目만곳치거나 또는飜案하거나 그러치안으면 그대로 全部剽竊하는 事實을 往往發見할수잇스니 이에對하야는 剽竊犯罪者의失態를 警戒할必要도잇거니와 이가튼作品剽竊의 非行이 進行한다면 朝鮮文壇의 發展을 阻害할念慮가업지안타。

朝鮮文壇의 現狀은 바야흐로 西風秋天에 黃葉이 지는 가을날의山野와가튼 늣김을주니 압흐로 偉大한 文藝作家의出現이 날로늘어서 完全한 發展과 善良한敎養이 잇기를 期待하는 今日에잇서서 作品剽竊犯行에對하야는 斷然히 文壇的으로 制裁하지마지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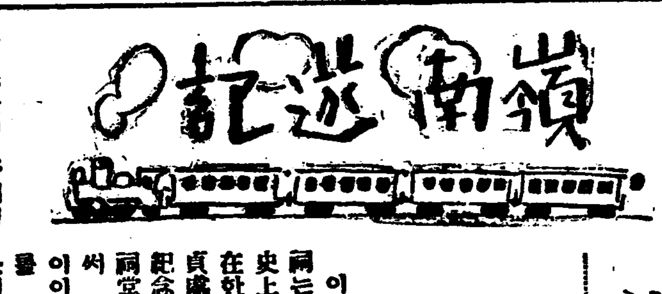
―一九三四、九、二七―

廢墟의가을
張應斗

가을날 드놉은하늘 엿튼쫏이 해맑은데
기러기 울어예여 어데메로 저리가나
새벽달 지만울로 허튼길을 떠나가고
斷橋의 외우롭은 귀도리에 날엇구나
이밤도 허동지동 바람절에 지새는데

물이갓네 [illegible] 곳에 끌고왓는가
에레미 맑은물에 [illegible]
구슬조에 [illegible]
물이지고
[illegible] 우슴짓네

純貞女의阿娘祠
嶺南遊記 (3)
보헤미안의無軌道旅行
咸大勳 文
金奎澤 畫



이阿娘祠는 歷史上에實在한 純貞處女를 紀念하는 祠堂으로써 나는 이이야기를 李時泉으로부터 仔細히 듯게되엿다。

只今으로부터 五百餘年前 李太祖功年 東道元帥 王賓이 尹陳의 軍功을 세워주기 爲하야 尹氏를 密陽 府使로 任命하게 되엿다한다 이러하야 尹氏는 그의안해 睦氏와 딸貞玉과 어린아들하나를 다리고 이곳으로 赴任하게 되엿다한다。

그런데 尹氏집에는 이 어린 아들을 키우기 爲해 乳母하나를 어덧는데 그어느날의하로 이乳母는 尹府使의印陪(通引이라할수잇는것) 白朱旗로 부터 눈물에저준 하소를 밧게되엿스니

이것이 那終에 크다란 禍根이 될줄은 夢想하지 못하엿든것이다。

印陪 白朱旗는 內衙에 자조 出入하든 關係로 尹氏딸 貞玉의 淸雅、美麗한얼골에그만마음이 쏠리게 되엿스나 地位로 보나 그무엇으로 보나 到底히 貞玉을 戀慕할 處地의 몸이 안인것을안 白朱旗는 짝사랑 相思病에 불타는 가슴만 쉬여듯고 잇게 되엿다한다 그러다가 이 타는가슴의 하소를 乳母에게 告白한뒤 어떠케하든 嶺南樓下蓮塘미든로 한번 貞玉이를 더려내다가 만나게해 달라고하엿다

그리하여 이乳母는 그어느 달밝은밤 이곳으로 貞玉을 더려 내오게되엿다한다 그런데 이 乳母와 貞玉은 母親睦氏가 反對함에도 不拘하고秘密히 外出을 하엿는데 水尺(守衛)이가 이것을알고뒤를 따르게되엿다한다 그리자 뒤에숨고잇든印陪 白朱旗는水尺이가잇스면 成事못할것을알고突然히나타나『官家에잇서야 하거늘!』하는一叱로 쫏차버리고 樓上에 올라 貞玉을 만나게 되엿다 乳母는 水尺이를 부르는체하고 두사람에게 종용한 機會를 주고『水尺이! 水尺이!』하고 불르면서 樓下로 나려갓다 그때 白朱旗는 貞玉에게 自己의 애타는 戀慕의情을 하소하엿다 그러나 貞玉은 찬바람이 회도는 한마듸말!『그게무슨소리냐!』를남겨 노코 달어나려고 하엿다 그러나 歡心을 먹은 白朱旗는 참을수가업다는듯이 가안된 貞玉의 허리를 끄러안고 『**주어주소서**』하엿다

그러나 貞玉은 끄러안는 白哥를 뿌리첫다 그러나 白은『저는 당신이 안이면 죽습니다』하고 매어 달엿다 그래도 貞玉은 뿌리첫다。그리

하여 歡心에 물라는 白哥는 소매속에서 短刀를 끄내들고 威脅하엿다 그래도 貞玉은拒絶하엿다 歡心에 떨리는 白刄은 及其也 貞玉의 목숨을 쩔렷다 樓上에는鮮血이 淋漓…… 貞玉은 그만 애처럽게도죽어바리고 말엇다 그리하여 이죽은 死骸는 그아페대人숩에 던저버리고 白哥는 다러나고 말엇다 樓上의 月光은 皎皎암호로 호르는 密陽江은 이秘密을 보고도 못본듯 悠然히 흘러가고 樓上의 기둥들이光景을 보고도 못본듯 沈默을 직히어 이純貞處女의『**殺人事件은**』暗中에 埋葬되고말엇다 한다

◇ 其後 尹氏는 職을 辭하고 故鄕開城으로 갓다는데 그後任으로 赴任하는 府使는 오는이마다 그날밤 屍體가 되곤하엿다 한다 이것이 事實인지 안인지는 알길이 업지만은 如何間 이傳說은 滋味잇는 이야기다。

이리하야 그後任으로는 그누구나 赴任하기를 즐겨하지안이하야 數年間 密陽府使는 空職이되여 잇섯다한다。

그어느해 京城 李迨라는者는 密陽府使로 赴任을自進하게되엿다한다 그리하여 오래 空席으로잇든密陽府使는 赴任하게되엿는데 赴任初夜 李迨는 子正이넘은뒤에 커―다란 變을當하게되엿다한다 그것은

一陣狂風에 문이열리자 피(血)를 뿜으며 妙齡의 女性이 突入하는것이엇다 李迨는 그瞬間 놀래이엇스나泰然히안저 『무슨 妖女냐?』하고꾸짓첫다한다 『네! 小女는 貞玉이란 女子의魂이온데……』하고 自己가애매히 白朱旗에게 죽엇다는것을 말하고 그원수를 가퍼달라고 하엿다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副司! 그 請을 듯기로 한뒤 翌朝 그事件의 調査를 進行하야 乳母는 잡어 流配를 식히고白朱旗(當時戶房으로 잇섯다한다)는 直時 死刑을 執行한後 이 純貞女의 祠堂을 이密陽江岸에 세워주엇다한다。

우리는 李氏의 이이야기를 滋味잇게 들으며申爽均의阿娘에對한

詩一句를 외이면서 嶺南樓를 나려왓다

西風人倚嶺南樓
水闊靑山散不收
萬戶笙歌明月夜
一江漁篴白雲秋
深閨慣讀內則篇
貞玉芳姿年未嫁
閑育一流母氏訓
玩月那知乳媼詐

가을의航路

【詩】「초」外四篇
許俊

「초」

너는 光明에다、暗淚를쏫는다
그리고 그눈물을태여 다시사도다
暫間 넘히떠러지는 동안에
나는 人生의幸福과 不幸을 알엇다
四肢를비리고 누엇스니
업서진 오늘이 살어온다

「가을」

나는 甘露와가티 너를마시는데
너는 나에게 젓지안는다
계집은 깨여저서는 아니되는꿈이다
그러나 잘 깨여진다
계집은 落葉이업는나무다
그러나 마음에 구녕가먹는다
자랑하지마라 내洪水의탓이다
그것은 내몸을汎濫한다

「感傷」

내홍음우에 찬흙밤이안고
바람의魂이 별을싣어다 주는밤
나는 네秋波를 아지못햇다
허―근울엇든 울음이다
다시 傷處를갓기위하야 밤새 허―근울엇는다

「詩」

詩를바는 印刷機가 내心藏을친다
내고기를 먹고는 오늘도 내心藏을친다
나는形骸가되여 그부서지는 餘響을듯는다

「短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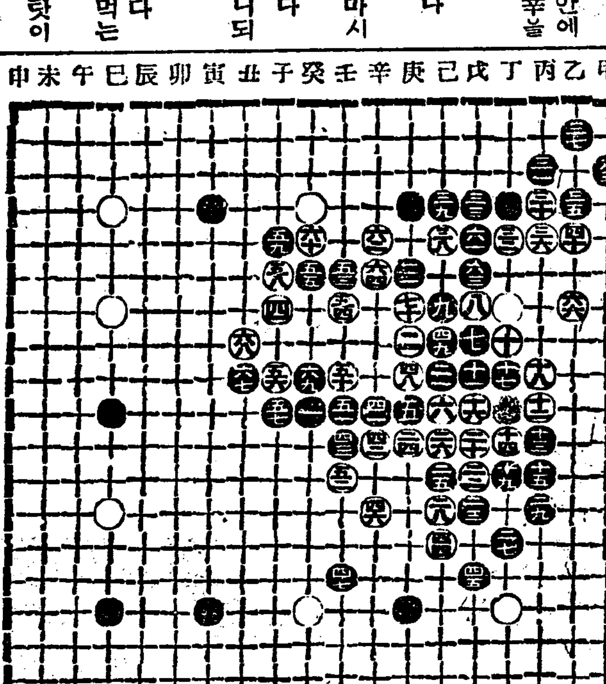
내、해묵은 손때가 그대몸의香氣가되여서
어느듯 나는그대의 體臭가운데 잠엇도다
오 애닯은내 그림자여
그대는 이하룻날도 또 나

漢詩
碧梧山人 考選

仲秋月 選外佳作 四
京城 鄭寅基

氷輪湧出漢西城
如畫三分活有聲
抱括山河獨持滿
掃除雲霧倍揚明
疎林漏影疑星散
遠水添光較雪晴
問爾姮娥偸藥後
幾人且有得長生

國手選拔 圍碁對局譜 (七)
◇本社主催◇
白 梁德文
黑先 丁奎春
略符=(□百△•二百•◎三百)



(●六一)戊의五(○六二)辛의五(●六三)戊의六(○六四)辛의六
(●六五)甲의十三(○六六)乙의七(●六七)丑의九(○六八)丑의八
(●六九)癸의九(○七〇)庚의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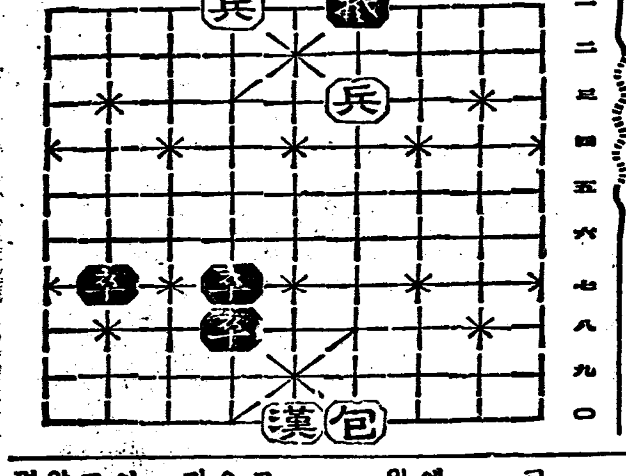
◇死點(○將點)丁의十二(○一四)乙의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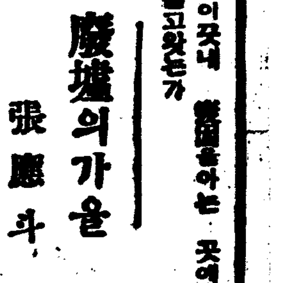
◇對局者談=黑이 戊의五로 着하야 辛의五로 白이 窺視함을 忘却하고 壬의六 癸의六 黑二點을 白에게 提供함은 不妥當으로 推測된다 黑이 乙의三 白一點을 打取하니 黑耳角이 完保되고 白은 乙의七로 置中하니 丁의七 將點이 後慮가 更無로다 요다음 開戰地는 何處가 最合한고 大勢를 一觀할지어다

博譜
【解答一四三】

五包―五三
四卒―五二
五包―七三呼將
四車―四一
五四兵―四四
五卒―六二
六三兵―六二卒打
七卒―七六
七包―七七
七八卒―六八
七包―四四呼將決勝

博譜係





愛慾 (2)
連載短篇小說
朴泰遠 作
金熊超 畫

第一折(2)

경성지방법원압까지 와서、본래가든면 리화학당(梨花學堂)아롤지나 서대문으로 나가는길로 들어섯슬것을、그러나 오늘밤은 바로 조금전의 행동화(行動化)할수업섯든 그홍미잇는 감정도 도와、그들은 기약지안코 좀더 은근한 방송국(放送局)넘어가는 길을 택하려들엇다。

『난 이길이 조와。여기하구、원남동 신작로하구。』

갑작이 녀자는 꿈꾸는듯이도 자못 감격을 금할수업는듯이 중얼거렷다。그러한거리는、딴은、남녀가、특히 밤늣게 산책하기에 조흔곳들임에 틀림업섯다。

그러나 그는 일즉이 이녀자와 그런곳을 가티 걸어본일이 업섯다。

(이여자는 정말 부랑소녀나 아닐까?)

남자에게 대한 언동(言動)을 볼때 이 지나치게 대담함을 늣길때마다、그가 이녀자에게 늣기지 안흐면 안되는 의혹을 그는 지금 또 느꼇다。그는새삼스러히 녀자의눈을 본다 그러나 녀자의눈은 그러케도맑고 또 깨끗하엿다。

문득 길人가 나무그늘에거릿차가 가만히 움즈겻다。

『우리는 역시 우리길루 가기루하지。』

남자는 쓰우숨과함께 말하고 걸음을 멈추엇다。

『웨요?』

역시 젊은남녀가 나무그늘에서 나와 그들을 돌아보는 입업시 고개를 올려갓다。

『아까 복수를 저사람들안테 할까닭도 업지。』

갑작이 녀자는 해해웃고、그의여프로 달려들어 충동적으로 남자의 올흔편 겨드랑미테다 팔을 끼엇다。

나이는 열여덟이라면서도、이미 완전히 성숙한 녀자의 그러케도 탄력잇는 팔은팔의 압감(壓感)과 체온(體溫)을 느꼇슬때 남자는처음에곤혹(困惑)하엿다。조선제일자동차학교、제이실습장(實習場)압을 돌아、원래의 그들의길로 돌아서며、문득 그는

『참말、모레 돌아 가시렵니까?』

리화 녀고보의 긴― 조선 담―。

『네。그러나 또 며칠 잇서두 조쿠요。』

마침 지나는 리화녀고보정문에 달린 외등을 치어다본 녀자는、혹은、남자나 마찬가지로 그 밝음을 저주하엿든지도 몰은다。

또 기―ㄴ담을 끼고가면서

『너무 오래 게시면、아버니께서 걱정안하시겟서요?』

정동十三번지、양인의집 의 등에는 전구(電球)가 업섯다 까닭에 그 마즌편 전신주에 달린 전등은 그들에게는 좀더 원망스러운것임에 틀림업섯다。

『제가 어서 서울을、떠나는게 조세요?』

젊은사나이가 저편에서 걸어왓다。남자는 녀자의팔을 해방하려하엿다。그러나 녀자는 좃지안핫다。

『아―니、그런 뜻이 아니라……』

젊은사나이는 눈에 모멸을 가지고 그들을 빨으게 훌려보고、그리고 지낫다。

『저……』

마츰내 그들은 리화녀자전문학교정문아페까지 왓다。여시 전신주에 달린 전등이、또 마즌편 로서아 령사관의 외등이、남자를 잠시 주저하게하엿스나、그러나 이골목에서 어두움을 찻는것이 절망임을 아는 그는、용기를 내여 녀자를 리화녀전(梨花女專)정문 집웅미트로 이끌려하엿다。

그러나 녀자는 그를 두려움업는눈으로 처어다보고、갑작이 그의팔을 노코、혼자 떨어져 저편에가 서며、어리둥절하여하는 남자를 향하야 바로 十五六세의 소녀와가티 명랑한웃음을 웃엇다。

水災에우는同胞에 輻湊하는同情의涙

家家戶戶歷訪 救濟品모아寄託 開城滿月町總代의義擧

【開城】개성만월정총대(開城滿月町總代) 서무(徐懋)씨는 관할구내에서 가가호호를 련방하야 삼남수재구제금품으로 현금 삼십원륙십오전 의류십이점 령신환 오백개를모아서 삼남리재동포에게 보내여달라고 본사개성지국에 긔탁하얏는데 일반은 전긔서무씨의열성과 만실정유지들의 의거에 감탄하야마지안는다고한다

素人劇開演 收入金品寄託 嶺美劇友會에서

【嶺美】평북령미극우회(嶺美劇友會)에서는 지난달팔일밤에유지의만흔 동정을바터 소인극을 대성황으로 마친바 수입금삼원을삼남동포에게 보내달라고긔탁하엿다。

"느저서罪悚하나 災地에보내주" 圖們金珍鏞氏赤誠

【圖們】국경도문시에 거주하는 김진용(金珍鏞)씨는 삼남수재에 울고잇는 동족에게 이제야 표정하는것은 붓그럽습니다만은 그동안 출타하엿든관계와 여러가지사정으로 느젓슴으로 용서하고 의탁을바더주시오! 하면서 일금삼원을 가지고 일전도문지국에 차저왓슴으로 접수하엿다

右社支部員의 總動員義金醵集 —本社支局에寄託—

【保寧】충남청양군정산면정산시(靑陽郡定山面定山市)에잇는 은홍산우사정산지부(恩鴻山右社定山支部)에서는 지난여름의참혹한 수재로 수십만의삼남리재동포가 밥입코옷입고 심지어집까지 탕량에일허버리고 굼주리고 헐벗고 잘곳까지업서서 헤매는 소식을듯고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하는 가운데에지부(支部)의중요원되는 윤병선(尹丙善)김경배(金敬培)량씨외 십여인이 출선하야 일반사원에게 동정의눈물겨운 성금 삼십일원을모아 본보보녕지국에 긔탁하엿다

圖們和信商會 店員一同赤誠

【圖們】삼남수재에대한구제의소리는 날이갈수록 이역만주 도문(圖們)에서도 놉파가고잇다 도문화신상회점원일동은 재지에서 우는 동포를위하야 일금오원을 가지고와서 본보도문지국에 긔탁하엿다

圖們警察隊員이 密輸者를銃殺投江

無反抗의犯人을銃殺햇다고 社會側輿論이沸騰

【圖們】지난구월이십칠일밤 연길현삼도구두만강변에는종성의요란한사격소리가 림시부근주민을 놀래게하는사실이 잇섯는바 이제그내용을 들으면당야강령호(姜亨某)등오륙명은배에다가소주(燒酒)를실고남양(南陽)으로 부터 도문에 잠족하려할때에 국경경찰대원네명이 돌연 나타남으로 할수업시 다시도망하야 배에올랏든바 경찰대는 뒤를따라추격함으로 그들은할수업시 물속에 뛰여들엇는데 오직강령호(姜亨某)만이해엄칠줄몰음으로 그냥배에 남어잇다가 그가사살되여 투강을당한것으로 시체는이십구일에 발견하야 령사관에서 해부한결과 탄환이등으로 부터 들어간것이분명하게되엿슴으로 이것은 아무리 밀수현행범이라하야도 하등의반항도 업는것을 사살투강한것이라하야 일반 사회의여론은 비등하다고 한다

種牡牛品評會

【奉化】경북봉화군농회주최로 봉화 상주 문경 례천 영주(奉化尙州聞慶醴泉榮州)오군련합심사로 지난삼일 오후세시부터 봉화읍내우시장에서 종모우사양관리품평회(種牡牛飼養管理品評會)가 개최되엿는데 출품 이십오두로써 그중최우등 십칠두를 심사선정하여 일등일두 이등이두 삼등오두 사등구두로 상품오십오원을 수여하엿다한다

夜學會舘基地로 土地六百餘坪喜捨 金浦孫和允氏美擧

【金浦】김포군대곳면률생리(大串面栗生里)사는 손화윤(孫和允)씨는원래가세는 넉넉지못하나항상공익사업에뜻을두고지내오든바 금번봄에 그이웃동리인초원지리(草元芝里)부락에서 농민야학회관을 건축하려고 긔지를구하든중 전긔손씨는 만치아니한 자긔소유토지 약륙백여평을 자진하야 긔부하엿스므로 일반은 전긔손씨의 독지를칭송한다고한다

人口一萬七百名에 一個所의普通學校

學校는增設되나入學率은漸減 寒心한咸南의敎育機關

【咸興】함남도의 초등교육 상황은 금년에오교를 신설하여 삼십일면에이교로서 삼십일 량면도에 십교만 신설하면일교제가완성될 현상인데 이러케매년증설하여 수용정원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응모아동수가 가속도로 증가되며 아동입학비례는 빈반감소되어보통학교 입학에도 시험자격이 생기는 과현상은 영구한사고라자지 못할 한심한상태이며 전도내를 통하여 비례하여보면 호수입학정원에 삼십구호에 대하야 일할가되며 입학정원에 십세대일포자에 대하여 겨우일교나 가지게된 현상이라고 한다 이제최근삼개년간의 공사립 보통학교의 입학상황을보면 다음과갓다

◇公立普通學校

	九年度	八年度	七年度
定員數	[illegible]	九,六六名	六,三〇名
應募者數	[illegible]	一六,六一五名	一六,七七三名
入學者	六,二一四名	七,五八六名	六,四〇九名

◇私立普通學校

	九年度	八年度	七年度
定員數	一,二五六名	一,〇九八名	一,〇五九名
應募者數	一,五九六名	一,二六五名	一,二三四名
入學者	一,二五五名	一,〇六二名	八八六名

白沙婦人會의 模範農村建設

【寶城】보성군문덕면백사리는 원래부터 소작인부락으로써 빈한한생활에 만흔고통을 겪거오던중백사제지조합(製紙組合)이 대확장됨을따라 남자가제지업에 종사하게됨으로 부인들도

平壤府內에 傳染病猖獗

五日間患者二十七名

【平壤】산들거리는가을바람 따가리 장질부사를 비롯하야각색 전염병이 무서운세력으로류행하게되엿다 일일부터 오일 아츰까지지평양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은장질부사십칠명 파라지부스일명 성홍열(猩紅熱)사명 「지푸테리아」삼명 뇌막염(腦膜炎)이명합계 이십칠명이 발생되여 그중이십삼명이 격리병사에서 신음하고잇는중인데 장질부사는 일일에 네명이상이 발생하는터이며 성홍열 류행성뇌척수염도창궐할형세이므로 부외서에서는 방역진행중이라한다

荷車와自轉車衝突

【安東縣】삼일오후삼시삼십분경 안동현사면동륙정목 실업은행(實業銀行)압해서 시내오처항(吾妻巷)요리점 점원 송장정(宋長亭)(二○)이가 타고가든 자전차와 안동현대동구 즘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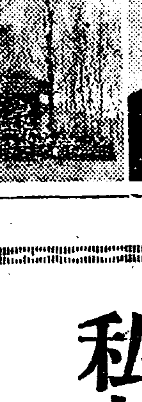
親父殺害事件 實地檢證終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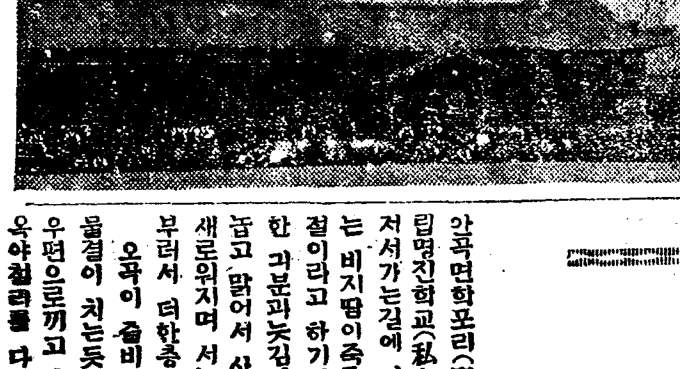
靑年鐵道自殺

【明川】지난삼일 청진발성진행(第一九一四號)렬차가 오후칠시 오십이분에 동면극동역을지날때 동역구내에서 청년한명이 뛰여드러무참히도 자살하엿다는데 그는 명간공립보통학교(明澗公普通學校)소사 최명준(崔明俊)(二三)으로 자살한원인은 지난일 영안(永安)소학교 주최로부근학교련합운동회를 개최하엿든바 명간공보도 참가하게되여그날학교가 비인중 사무실에두엇든 교장의현금 십오원이업서젓다하야 교장에게 주목을밧든바 이날길거리에서 술을마시고 그를분이녀겨 그와가티 자살한듯하다고한다

【平壤】친부살해범인으로판결의결과가 극히주목되는 평양부외률리면류신리(平壤府外栗里面柳新里) 오천일(吳天一)(三一)에관한 살인급 사긔사건의 공소공판은 평양복심법원에서 심리중이든바 좌등(佐藤)판사는평양서임(任)형사부장의 안내로 실지검증을 행한결과 피고오천일의 의뢰를 밧고 오명보(吳明保)를 살해햇다고추정하는장의걸(莊義杰)이가 그당시에살고잇든집에서 오명보의집까지는 지름길로는 도보로 한시간이십오분 원길로서는 한시간오십분을 요하는것이 판명되여 오명보가 살해된시간이 오전두시경이므로 장의걸이가집에서 자고잇든것이 사실이라해도두시간삼십분동안이면충분히 왕복할수잇다고 립증된다 또 장의집에서 중대비밀을들이야기햇대도 십분이면 넉넉하다고인정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되엿다 이다음공판은 문제의여성 장의처 추학순(秋鶴順)의 증인심문이잇슬터이라한다

【大同】대동군사립(大同郡私立)화물자동차ㅣ운전수도변청장(渡邊淸藏)(三○)ㅣ와정면충돌되여자전차가파손되는동시에 정원은중상을입어 성천병원(成田病院)에입원치료중이라는데 완치일개월이상을 요한다고한다





丹北公普認可 位置는蓮堤洞

熱望中의—

【安溪】문맹의퇴치가사회정책상 최선의급무인것을느낀 당국으로서는 종래의 긔정방침으로 일면일교제를 착착진행하여왓스나 아즉것 경북의성군단북(丹北)면만은 이에대한 시설을엇지못하야 학령이넘은 다수의아동이 가로에서방황하든중 이에동감한 동면유지 식자로서는 백방으로 활동하든바 수일전에 보교설립에 대한 정식인가를 어덧는데 문제중의위치는 동도학무과원으로서 실지답사한후 동면 중심지대인 련제(蓮堤)동으로내정하고 서옥건축에 대분망중인데 느저가는 해변의아동을위하야 림시로 어떠한교사를빌려 동원간 개교할예정이라고한다

進永面不正事件

被逮中의會計員送局

【進永】경남 김해군 진영면에서는면세금륙십여원을재증수하야 회계원류석규(會計員劉碩規)(假名)가횡령소비한 사실이 발각되여 김해경찰서에 구금되엿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그후 경찰당국에서 각방면으로 활동한결과 면작장려금(棉作奬勵金)과 퇴비사보조금(堆肥舍補助金)등을 면장부에는내여준것과가티 꾸며두고 현금은남모르게 집어먹은사실이 새로발견되엿스며 그외에 인장위조행사(印章僞造行使)도 잇다는데 엄중한취조를 맛치고 신체구속한대로 부산검사국으로 보내엿다고한다

米價의暴騰으로 細民生活大威脅

【咸興】제일회미작수확예상고가 작년에비하여 감소된것과 관서대풍수해 등으로 미가는련일폭등하여자난 사일함흥 시장의시세는 일석삼십이원 칠십오전이라는 미증유의 폭등으로세민등의생활은 일층가중하여 가는바장래가 주목된다고한다

익어가는베이삭에 債鬼만血眼狂舞

支拂命令立稻差押等等으로 固城地方은殺風景

【固城】일년동안 피땀을 흘려가며 근근이농사를 지어가지고 반갑게 마처야할이즘에벼가 익기도전에 벌서부터 채귀들은 지불명령 립도차압 경매등으로 살풍경을 이룬다함은 매일신문지상에 보도되는바이어니와 근일 경남고성지방에도 채귀들의 횡행으로 익어가는 곡물을보고 살긔등등하게 날뛰고잇는바 이제 고성우편소 관내만도매입십여건의 지불명령장이 나려오는데 배돈 당동 상리(霜里、堂洞)와 上里상우편소、관내를 합하면 실로 그수사자를 헤아릴수업는 형편이라는바 이로인하야 일반농가에서는 더욱공포에 싸여잇다고한다

敎育機關巡禮【二】

龜城嶺北地方의 無産敎育機關 七個校三百餘名

【龜城】평북귀성령북지방은 상개보통학교에 구학금、간이학교의 한학금、모다열학금에칠한 의숙(義塾)을 중심으로 서당을 포함하야 사십여명의 교원이잇서 삼백여명의무산아동을 교양하고 잇는바 그금설비등관계로 무보수에 갓가운직원들의분투노력은 실로 눈물겨운바이며학교명과 설립자급 교원명은다음과갓다

▲義英義塾 李金鎬 金世煥
▲育英義塾 朴亨魯 金濟得
▲日新學堂 金俊植 李運華
▲松林學院 金濟元 白浩京
▲明誠義塾 高炳翕 金秉河
▲安倉書堂 金學永 元鳳梧
▲信興義塾 李得河 女史外四名

私立明新學校今昔

卅年前廿坪建物의一漢文書堂 三百名收容의큰學校

安岳支局 一記者

안곡면학포리(安谷面鶴浦里)사립명진학교(私立明進學校)를차저서가는길에 긔자의 이마에서는 비지땀이죽죽흘럿다 중추가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머나어색한 긔분과늣김이잇섯다 하늘은 놉고 맑어서 사람들의긔신경은 새로워지며 서늘한 가을바람이 부러서 더한층 유쾌해진다。

오곡이 즐비하고터구나 황금물결이 치는듯한 벼 이삭을 좌우편으로끼고 나는것고 잇슬때 옥야천리를 다바러두고 긔자는 이국만주 벌에서 헤메이는동포들의 가엽슨생각이 떠오른다고리하여 잠시진정하기위하야 잠간 머물너서 복잡한생각을버리고 깨끗한정신으로 다시거름을 재촉하엿다 이십칠일오후 두시오분기는 이심칠일오후 두시오분이엿다 교문을드러서자 최병희(崔秉熙)선생이 왕방한 긔자를친절히 마저준다 이는일죽이진남포상공학교 상과를 우수한성적으로마치고 대정십오년 사월부터 이래근무 하는이로 그천재적 재질은 비교할데 업다 이근처에와서 명진학교라 고하면 류명내 (柳明來)씨를알게되며 류명내씨라고하면 명진학교를 상상하게된다 동교는 대정칠년사월에 창설하엿는데가량 떠러진곳에 건평이십평의 큐명내씨가 현교실에서 약이정서당(書堂)을 건축하야노코 아동약간을 모집하고 교사일인으로써 순전이 한자(漢字)를 훈육해오다가 대정구년상월에 이르러 전선의 향학열(向學熱)이 팽창하게되자 개량서숙(改良書塾)으로 고처서 전긔 개량서당의 교육이 되엿다 전긔 개량서당의 교육으로서는 시대에떠러진것을 자각하고 만흔재산을던지여 대성십일년구월에 건평 구십이평의 교사를건축하고 대정십삼년 류월삼일부로 사년제의 인가를엇고 소화삼년륙월에 교사건평오십평을 증축하고 소화사년삼월 이십칠일로 륙년제로학년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나오면서 가진어려움과 고동도만히당하엿스나 꾸준히 굴하지안코 독단으로 경영해나왓다고 하며 긔자가 차저 갓슬때에는 때마츰 교주가진남포에 가잇슴으로 맛나지는못하엿스나 좌우간 조선의문맹군 터구나 무산아동도 는 농촌의 어린이들에게 문맹을 타파하기위하여 자긔의재산 구천구백원과 밧(田)륙천백팔십평을 학교소유로 제공하엿다 고한다 그리하여 춘풍추우 이십여년동안에 당면한난국은 점점더하여가며 일시는 □□에까 되는 시씨의 은덕으로 겨신히 어려움을지나고 또는 창립당시에는 교육이라고하면 리해조차

못하며 더구나농촌에서는 하기어려운 사업으로 십지어혹자에게서는 욕설까지먹어가며 계속해 나오게된것이 지금에니르러서는 졸업생일백십칠명과 현재아동수가 이백오십이명이란 농촌의 학교로서는보기듬은 수자를 나타내고잇다고한다 그리고 학교의내용이충실하게되자 일반시설이며 또는참고서적이며 교재도 충분할뿐만안이라 리화학(理化學)실험긔도 다수 구입하여 상당한실험으로 아동들을 키우고잇다고한다 게다가 최선생의 김창식 류몽상 류몽룡(金昌植、柳鳳祚、柳鳳龍) 제씨의 텝사적노력과 유열은 전조선을통해서라도 자저보기어려운 초등교육을 하고잇다

—本校의特色—

동교는 농촌아동을 중심으로교육을하는만큼 지금으로부터 사오년전부터직업과목(職業課目)을 특설하고주 농사업(農事業)을하고 잇다하며 압흐로더욱유용작물과 여러가지 방면으로활용하리라한다

共同墓地位置 地元住民反對

衛生上重大問題라고 大邱、道와府에陳情

【大邱】대구부의공동묘지가 도라시 협찰하야 강으로그동안부당국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중이라함은 긔보한바 어니와그부지를 물색중 달성군해안면둔산동(達城郡解顔面屯山洞)에정하고、토지매수를 교섭하던중이 소문을드른、지원주민들은 크게 놀래여 자긔동리의 상류지방에다가 공동묘지를설치함은 위생상 중대한문제라하야 반대운동을 이르켜 도청과부청을방문하고 진정을하얏다한다

◇寫眞……厚昌郡內有志努力의結晶 獎學會記念立碑除幕式光景

三成相助會定總

【遂岳】평북귀성군 관서면 조악시내삼성상조회 (館西面造岳市內三成相助會)에서난 지난이십륙일제 사회정긔총회를 개최하고 구매부(購買部)설치등 중요한 사항를결의하고 일반임원은 아래와가티 선정하엿다한다

會長 崔志恒 書記 韓淳敏
會計 金義錫 金貞賢
理事 朴奎完 幹事 元炳蓮
安炳務 金蓮興 監査 林耀
龜 文興周 (以下略)

卒業生의活動

농촌소학교를 졸업한만큼 혹자는 상급학교에드 가나대개가농사에 종사하고잇스면서도 모교애호심은 말할수업슬만하며 터구나 그들은시간을 리용하여서는잡지서적등을열독중이며 매년한식(寒食)날이면미신을직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식당(寒食堂)에가서 미신을 숭배하는등사물를 타파하기위하여 팔년전부터 동창회주최로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매년한식날이면 젊은용사들이 힘것마음것 깃버날뛰며 펴본운동장에서 장엄을보임도 본교의 자랑거리라 고한다 ◇寫眞…私立明進學校舍全景과設立者 柳明來氏

農地令實施關係 金浦面長會議

【金浦】김포군에서는오는이십일부터 실시할 농지령시행에 관하야그취지를일반군민에게철저히 주지시키기위하야 지난이삼일에 군청회의실안에서관내구개면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령운용방법에 대한 타합이 잇섯다고한다

扶餘記者團 十日에創總

【扶餘】충남부여(扶餘)는언론긔관은 여러가지가 잇스나하등조직이업서 유감이든바 오는십일에 부여고란사(皐蘭寺)에서 부여긔자단 창립총회를좌긔와가티 개최케 되엿다는데각지국장과 국원은하시라도 빠지지말고 참석하기를 바란다고한다

一、十月十日(九月三日)扶餘皐蘭寺로
一、會費每人當一圓也
一、食費는各自負擔
一、規約草案一通
一、畫案綴別紙

八日間繼續한 金堤脚戲大會

三日로써終幕

【金堤】김제유지주최와본사김제지국후원하에 지난달이십륙일부터 열린 남조선각희대회는 멀리전남 담양(潭陽)광주(光州)군산(群山)전주(全州)대전(大田)등지에서 일류선수가운집하야 매일상천여명의 관객의환호리에 지난삼십일밤에야 폐막되엿는데 끗까지분투한 일제관의 입상자는 다음과갓다고한다

一流—一等朴俊益 二等鄭甲鎭 相 三等宋在晃
二流—一等宋在晃 二等李適 化 三等李相文
三流—一等羅基鳳 二等鄭甲鎭 貴 三等金連永

公州電料減下問題

警察部調停出馬 三輪高等課長活動開始

【公州】루보=공주전긔료금감하운동은 필경에 시민일체소등(消燈)단행으로암흑화하야좀처럼 해결이업시 지구전을하고잇서서 형세가혐악함으로 충남경찰부장이 조종에 출마하야지난삼일에 경찰부삼윤(三輪)고등과장이 공주에 출장하야전긔료금 감하긔성회실행 위원김명동(金明東)씨등 제씨를 당경찰서로 초청하야 무조건위임하라함으로 총회결의가 업시할수업다고 주장하고 지난삼일오후팔시경에 당지극장(劇場)에서 긔수용자 대회가 개최되엿는데 천여명군중은 정각전부터 운집하야 장내는입추의 여지가업시초물과 까스들의장내는 컴컴한 중에 입회경관은 고원서장과삼윤고등과장과 다수의 정사복경관경계중에 실행위원장 유정현(柳晴鉉)씨로부터개회를선언하고 경과보고와 텁시집행부로의 장 김명동(金明東)씨사회 하에 토의문제에 드러가자 장내의분위긔는 자못험악화하자 삼윤과장으로부터 문제의 조정요지와 당국의 교섭으로 공정한료금을 감하를은 타지방의 비률과체신국으로 회답한다고 백지로 일임하라고하엿스나 군중은 전긔회사의 성의잇는 대답이잇슬때까지 소등을단행 하기로한후 산회하니 때는오전 일시경이엿다 전긔실행위원은 문제의해결을 위하야 조정결과는 이삼주일내로 회답한다고 백지로 일임하라고하엿스나 때까지 소등을단행 하기로한후 산회하니 때는오전 일시경이엿다

地方人事

▲東島傳八氏(開城專賣局出張所長)京城專賣支局庶務課長轉勸人事次本社開城支局來訪
▲森慈一氏(元山郵便局保險課長)新任人事次去五日本社元山支局來訪
▲許承河氏(元山光明普通學校學父兄會長)同校早리쉬工場의用務를帶하고 約一個月間豫定으로北朝鮮地方을向하야 去四日出發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滿浦鎭支局
位置 平北滿浦鎭
支局長 洪宗賢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寧海分局
位置 慶北寧海市
分局長 金沅鎭

謹告

吉州支局
營業主任兼記者 崔 基 鎬
集金員 宋 龍 虎
右新任함

長湍支局
記者 趙 東 植
右新任함

昌原支局
記者 黃 浩 均
右新任함

固城支局
記者 薛 永 友
右解任함

記者 崔 淑 煥
記者 千 桂 上
大可駐在記者 李 孝 律
右新任함

清安支局
桃山分局記者 林 茂 植
同 林 英 植
右解任함

忠州支局
總務兼記者 高 昇 煥
右解任함

鐵原支局
月井里分局總務兼記者 李 學 任
右新任함

江陵支局
總務兼主任記者 金 吉 仁
右解任함

安州支局
記者 金 竹 源
右新任함

价川支局
記者 朴 永 昌
顧問 朴 善 澤
右新任함

厚昌支局
記者 金 時 溶
右新任함

大楡洞支局
總務兼記者 金 三 清
右新任함

總務兼記者 金 永 俊
右解任함

新泰仁支局
記者 金 容 稹
右解任함

火賊林巨正 (19)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一의十九

광복산은 산이 놉고 험하고 바위가 섯가티 둘린곳인데 주회 시오리에 터는 청석골보담 훨신 넓으나 인가는 십여호밧게 안되어서 꺽정이의 일행이 면접할도리가 맹낭하얏다 처음에 황천왕동이 인행 네사람이 왓슬때는 십여호에사는사람이 모다와서 정답게 인사하고 이집저집에서 오라고 청하기까지하더니 행차뒤에 행차로 다섯행차가 들어오는것을 보고는 거지반 문닷고 들어안저서 내다보지도안코 터러 나와도 술술들 아 다니며 동정만 살피엇다 보곳사람들이 일제히 나와맛지안는것을 꺽정이는 괘씸히 생각하야 졸개들을 시켜서각집의 주인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한바탕 야단을 친뒤에 우선 안식구 드려안칠집 몃채를 비어 노흐라고 널럿터니 십여호사람이 모다 집을 내버리고 도망하라고 단보찜들을 쌋다 꺽정이가 이것을 알고 두목과 졸개들에게 분부하야 보곳 사람들을 모주리 잡아서 묵거노케한뒤에 십여호 집을 일행상하가차지하고 들도록 분배하얏다 묵거 노혼사람들을 노하버리자고 말하는 두령도 잇섯고 두고 서울 중가 안보이는...

고꺽정이가 그말을 좃차 꼬부리자고 말하는 두령도 잇섯고 두목 꺽정이가 그말을 좃차 지안코 죽여업새라고하야 광복산에 살든 십여호 사람은 자기 기들의 말을 이리만 죽게되엿는데 뜻박게 잔혹한 화를 바덧다 꺽정이의 일행이 집생을 한 고 사람만 륙십여명이라 오 죽지안혼 듬에집 십여호를가지고는 구차히나마 용납할수 업서서 급히 독긔집을 몃채 세우기로 작당들하얏는데 집보담도 더 급한것이 량식이엇다 본곳사람들의 괴롭하라 든 량식이 고시란히 남아잇스나 서속과 귀밀이외에는 두려가 업마잇슬뿐이요 닙쌀은 전혀 업섯다 험한산골에 머기실혀하는사람은 누구누구 절것도업

고 숫제먹지못하는사람이오가 의내외로부터 리봉학이의내외와 황천왕동이의안해와 곽능동이의내외와 장인과안해와 길막이의내외와 서림이와 의원허생원까지 어른이 십여명이라 길량식으로 가지고온 쌀을 그사람들만 두고먹어도멋칠조석거리가 못되엇다 재백사하고 공량식쌀부터 모하드리기로 하고 가와 꺽정이와 오가와 서림이 외의 여섯두령이 둘씩 론들한뒤에 졸개몃씩을 작패를 지어가지고 두목과졸개들을 갈러다리고 이천 근읍에 나가서 량식들을 뛸 어오는데 리봉학이와 황천왕 동이는 신계가서 회원(灰院) 을 떨고 박유복이와 곽오주는 평강가서 옥동역(玉洞驛) 을 떨고 또 배돌석이와 길 막봉이는 안변가서 룡지원(龍池院)을 떨엇다 세군데서 떨어온것이 쌀이 이십여석이 요 닭은곡식이 십여석인데 거지반다소곰이 륙칠석이엇다 이것이 소 에 실려가지고 온까닭에 소는 두고 잡어먹엇다 량식과 찬 수가 생겨서 한시름을 놋 케되며 곳좁개들을 시켜 재 목을 내어서 사람잇슬의지깐 과 마소둘 어리깐을세우는데 두목은 차치하고 두령끼지나 서서 조역(助役)들을하야 광복 산들어온지 이십여일만에 대 강겨우 안돈이되엿다

꺽정이가 서림이와 의론하 고 서울편신을 더노키로 작 정하야 검붐잘것은 황천왕동 이가 뎃새에 한번씩 서울놈 왕래하게되엿는데 서울 삼백 여리를 하루에 널쩌 가고오 고하는까닭에 광복산가튼 듬 예구석에서 조정소식을 빨리 들듯고 지내엇다 어느때 황 천왕동이가 서울갓다 돌아와 서 듯고온조정소식을 다 권 하고난뒤에

『내가 이번길엔 우수운소문 하나를 듯구왓소』

하고 이야기도하지안코 웃 기부터하니 여러두령은고사하 고 꺽정이까지 어서 이야기 하라고 재촉하얏다

世界的景氣
最近情勢가如何

世界全體로볼 經濟不況은一九三二年初夏부터 漸次回復步調로 轉換하얏다 最初의 步調는 賠償問題解決에 一步를 進한『로잔느』協定이다 이回復은 一九三三年初春의 米國金融恐慌에 依하야 一時 挫折되엇섯스나 世界의景氣가更히 惡化되리라는 危惧는 多少하얏마안되어 解消되엇다。이것은 米國이國內經濟再建에對하야 勇敢한政策을 遂行한때문이다。同年六月國際經濟會議開會까지에 이미 明朗한景氣回復의徵候가動하엿다。大部分의 國家는 物價가騰貴하고 工業生產指數도 急激히 上進하얏다 이傾向은 國際經濟會議決裂에 依하야 多少鈍해젓섯다 하나 一九三三年과 一九三四年初期를 通하야繼續되엇다。

× 이上昇步調는 工業分野에잇서 特히顯著하얏스니 昨年末에잇서는 世界의工業生產이 一九二九年來의 不況에依하야 喪失하얏든것을四〇%나回復하얏고 今年初에는 다시上進되여 左表와가티九二八年의水準을 超하얏다

世界工業生產指數 (一九二八年＝一〇〇)

	一九三一年	一九三二年	一九三三年	一九三四年三月
白耳義	八一、八	六九、九	七四、三	六七、一
加奈陀	七六、七	六二、八	六五、二	七八、一
체코	八一、一	五九、〇	五七、五	五八、八
佛蘭西	九七、六	七五、六	八四、六	八一、九
獨逸	七三、六	六一、二	六八、九	八四、〇
英國	八三、八	八八、四	九三、一	一〇三、三
日本	一〇〇、七	一〇七、九	一二八、四	一三八、九
瑞典	八九、四	八三、七	八六、五	一〇二、九
米國	七三、〇	五七、七	六八、五	七五、七

回復의 가장 顯著하얏던것은 從來沈衰가 가장甚하얏든 部門으로서 例컨대 米國의自働車生產高와 如함은 昨年三月과 今年四月間에三倍의增加를 示하얏고 또白耳義를 除한各國의鐵鋼生產高는一齊히 顯著한增加이엇다

× 그러나 此等의回復은 반드시 가튼程度의 物價昂騰을 伴치는 안헛스니 昨年春及夏로 隣價의回復과 共히物價는 世界的으로 相當히大幅의昂騰을 보이엇지만 金本位國에잇서는 物價騰勢가 殆히 減價에依하야 阻止되엇섯다。그리하야 一九三四年上半期는 多數한國家가 高物價의 恩澤에 浴하얏나 하나 貨金平價를維持한國家에잇서는 새로운 때를려(通貨收縮)의兆候를 明白히 觀察할수잇섯다 이것이 最近世界景氣回復의內藏한矛盾의第一이다。

× 그다음으로 景氣의回復과 各國의財政狀態를 보면 英國과 如한은 徹底한節約政策을 取한以後에 景氣活動이 增加하얏스나 他國家는 景氣回復이 政府의支出이 急激히 增加한後에 나타난갓가 만헛나。

× 英國의債務狀態는 僅로 滿足할만한것으로서 今年三月末에終한一個年間에 一千五百萬磅의黑字로 剩餘를 보하얏고 三千九百萬磅의赤字를 算하얏고 큰減稅를 할수잇게되엿스나 米國과如한은 今年六月로써 終了한年度는 四十億의赤字이며 佛蘭西도 一九三三年은 六十五億乃至七十億法의赤字에다가 鐵道損失金補塡으로 政府는 四十億法을 賭하여야 할狀態이다。이와가티 政府豫算의 均衡을 得한다는것이 一般的傾向이 아니라 도리어 異例에 屬한事態 即이것이 矛盾의第二이다。 一(續)一

朝鮮農家消費金肥
昨年中三千六百萬圓으로
前年보다三割以上의激增
配合肥料漸增趨勢

朝鮮內 農作物肥料消費에對한 昨年中 數量(自昨年八月一日至今年七月末)은 三千六百萬圓으로 이것을前年에比較하면約三割增加에達하엿는데 그內容中主要한것을 들면다음과갓다

▲硫安二十萬五千噸(一噸百圓)▲石灰窒素二十萬七千噸(一噸九十圓)▲豆粕二百萬枚(一枚一圓五十錢)▲過燐酸十萬噸(一噸四十圓)▲加性肥料三萬噸(一噸百圓)▲配合肥料四萬噸(一噸八十圓)▲其他

그러고 今年八月一日로부터明年七月末까지 一年度間의肥料消費豫想에對하야 屎崎農林局技師는 알에와가티 말한다 米、棉、麥等의高價로 今年度에相當히 肥料消費의增加를 豫想할수가잇다 그러나 目下大藏省에서 查定中에잇는 朝鮮土性調查의 計劃대로된다고 하면 朝鮮內의肥料消費가 어느程度까지 減退케될것이다 그런대 朝鮮農家의一般的趨勢中 硫安、豆粕等의消費에서 漸次 配合肥料로 轉換하는傾向이 顯著하여가는바 이것은 달는肥料보다 配合肥料가 比較的安全性이잇는때문이다 그러고 總督府로서도 앞으로五個年間計畫압에 朝鮮內消費總金肥에對한 五割以上을配合肥料로하라는 方針이다 따라서 于先今年度豫想으로百萬叺乃至百五十萬叺의共同配合肥料로 하기로되엇다

米穀統制骨子
差別待遇가分明
調查會委員長에反對를打電
六日朝鮮米擁護會

朝鮮米擁護期成會에서는 六日午前十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緊急總會를열고 矢鍋永三郎氏가座長이되여 지고 三井氏로부터 五日夜의米穀研究會委員會의經過(別項)를報告하고協議한結果 米穀對策調查會特別委員會의 靑木委員長에게 알에와가티打電하야 反省을求하는同時에 拓相、有賀委員、政務總監에게 寄附側陳情委員、打電한旨를打電하야 靑木委員長의態度를 聽取하도록 하엿다고한다

▲電文 米穀統制의骨子는 外地米의移入統制에서만 求하라고하야 (一)그自由移出을禁止 (二)制限 (三)課稅 (四)或은 外地米에對하야만 專賣 또는이에類似한 政府의管理方法을 取하든 外地米의 差別的待遇로 到底沈默을지힐수업다 그럼으로實現을阻止하여온바인데 이번의審議에잇서 그點을諒察하기를望함

그러고 以上의事情을宇垣總督에게陳言할必要가잇다하야 六日에總督府를訪問하고 矢鍋、三井、松井、朴榮喆、齊藤久太郎의諸氏가 代表가되야 詳細히陳情한바가 잇섯다고한다 (寫眞은擁護期成會光景)

全面的反對
昨夜米穀研究會

昨報한 米穀研究會에서는 五日午後五時부터 銀行集會所에 委員會를열고알에와가튼事項을協定하고九時半에散會하엿다

(一) 米穀對策調查會에提出된 各種參考案의 逐條審議를하고 다시不遠委員會를 繼開하야 審議를續行하고잇다

(二) 前記參考案에는 全面的으로 反對한다 即表面的으로는어떠튼지 實質的으로는明白히差別待遇임으로期成會에 反對를打電케하기로하고 電文을作成

(一) 總督府와協議한뒤善處할일

六日朝鮮米擁護會

殖銀米資
九月末現在高

殖產銀行의 九月末現在米穀資金融通總額은

長期貯藏正租	二、一七〇千圓
短期 一般	八〇〇
荷爲替	三、九六〇
合計	六、九三〇

으로 今年度最高額에 比하야 約一千五百萬圓의 減額인데 前年度에比較하면 米價調節策이奏効하야 多少增加하엿다그러고 商爲替資金이 比較的多額을占한것은 端境期에日本內地消費市場의糧米不足으로 朝鮮米의移出이激增한때문이다

『暹羅米輸入解禁』
外務省에서非公式으로提議
農林省은反對意見

【東京電話商通】外務省은暹羅米의輸入禁止를 解除하여달라고 再次農林省에非公式으로提議하엿는데 農林事務當局은依然히反對의意見을表明하엿다

日蘭會商은 成立이絕望
▲……스파니야드氏談

【海牙五日發聯合】日蘭會商에活躍하든스파니야드氏는本國政府의招電에依하야 五日바타비야로부터海牙에 歸還하엿는데氏는 日蘭會商開會後의經過에徵하야會商成立의 可望이殆無함을豫斷하야알에와가티言明하엿다

바타비야會商에서日蘭兩國代表部가 何等의協定에到達할可望은當分업다 어떠든지日本綿製品의輸入은 何等方法으로든지阻止하고그代身으로英國及獨逸品의輸入促進을圖할必要가잇을것이다

蘭印輸入都賣商
聯合會側回答

【電通바타비야五日發】蘭印輸入都賣商組合聯合會는 日本側의諸要求에對하야 提案中의

(一) 組合規約不履行罰金二萬盾을 一萬盾으로減額
(二) 組合脫會後 義務負擔하는期限을 二個年에서一個年으로短縮

의二項을 通知하엿는데 其他도受諾키어렵다고 回答하엿다 日本側은 五日 午後二時부터 各輸入業者가 協議한結果 自由의立場에서 加入不加入을決定키로된바 右輸入業者側은結局 加入할모양이다

米日爲替小弱

【京城五日發聯合】五日의米日爲替는 賣 二十八弗八十一仙으로 三仙低 買 二十八弗十三仙으로三仙低

▲東京爲替(六日)

	賣	買
對米	二十八弗四分三	二十八弗八分七
對英	一志二片卄三分一	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六日)

	賣	買
對米	二十八弗四分三	二十八弗八分七

第二豫備金支出

【東京電話聯合】바타비아에서開催中의 日本蘭領東印度通商會議委員派遣費 二十萬四百圓(外務省所管)及間島地方의土兵被害救助救補助四萬七千五百六十圓(朝鮮總督府所管)第二豫備金支出의件에對하야 勅裁를經한旨를六日發表하엿다

朝鮮簡易生命保險支拂

朝鮮簡易生命保險의 九月中保險金支拂件數는 八百七十六件그保險額數는 九萬六千八百八十圓인데 內譯은 아래와갓다

死亡保險金의一部支拂을한것 契約成立後一年未滿에普通病死로 二七四件 一、八二二、圓八八
契約成立後二年未滿에普通病死로保險金의半額支拂을한것 一九七件 一五、五六一、圓一二
契約成立後二年을經過하야普通病死로保險金의全額支拂을한것 三六六件 七一、三二六、圓六三
契約成立後傳染病其他災害로因한死亡에對하야保險金의全額支拂을한것 三九件 八、一七九、圓〇〇

今日財界 (六日)

米(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二六二〇	六高
大阪期米先限	二九九〇	一高
㊂三等米一石	二八五〇	三〇高
京城鮮白米一石	二九五〇	不變
正租(仁川)(改良)一斤價(在米)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匁買	一匁賣
金	十三圓〇〇錢	十三圓八〇錢
銀	一〇錢〇厘	一七錢〇厘

株(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一九六〇	不變
東新	一三七三〇	一〇高
日產	一三〇六〇	四〇高

商品(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二三〇一〇	不變
大阪綿花	六六六〇	一〇高
大阪人絹	八六六〇	不變
大阪砂糖	—	—
고무現貨	[illegible]	[illegible]

佛高率關稅
制度로改正
十一月中旬實施

【巴黎五日發聯合】佛蘭西政府는現行輸入制限制度의 全廢를斷行키로決定하고商務省當局에서 改正案의起案을 빨리하는터인데 確聞한바에依하면 改正案의骨子는 從來만흔商品에亘하야 行하엿든輸入配定制限制度를 撤廢하고高率關稅制度를 採用輸入關稅率을 引上할點에 重點을둔것이라고하야 新輸入稅는十一月十五日까지 實施할터이라고한다

大阪濡米
賣却決定

【商通東京電話】大阪의濡米百萬俵 神戶五萬俵는 이미被害地의 關西地方에서 整理賣却中인데 다시 窮乏한養蠶地方과 東北地方에도 申請에依하야 拂下하기로 六月農林省에서 決定하엿다

朝鮮內砂糖消費
昨年三千六百萬斤

昭和八年度朝鮮內砂糖消費稅는 數量三千六百六十四萬六千斤 稅額二百四十四萬五千圓으로 그中砂糖은 三千五百五十五萬九千斤 二百四十三萬三千圓 糖蜜百五萬一千斤 一萬圓이다 前年度에比하면 數量百七十六萬四千斤 稅額四萬二千圓이各減少하엿다 그러고 消費稅의 免稅로된것은 數量一億一千七百二十九萬二千斤 稅額六百五十七萬二千圓으로 前年에比하면 數量九十萬七千斤 稅額三十九萬圓의 各減少이엇다

南朝鮮鐵道決算
前期보다增收

南朝鮮鐵道會社 昭和九年上期(三月로부터八月까지)決算에對하야 鐵道局의檢査가끗낫는데 그成績은이례와갓다 本期營業收入은三十二萬一千四百五十四圓八十九錢으로前年同期에比하야 二萬六千百

京城고무價續騰
◇…今年月別內容

京城의고무價는 昨年中一封度一月中十六錢이엇든것이年末에는 二十五錢으로되고今年은 一月二十八錢 二月三十一錢 三月三十五錢 四月三十六錢 五月四十三錢 六月四十七錢 七月四十五錢 八月四十七錢으로 大體漸騰한바 이것은 今年四月에成立한 고무生產協定으로 因한것이라고한다

咸北鰛
豐漁狀態
昨年以上確實

最近咸北方面은 鰛의盛漁期에 드러가 現在約四十組의船이出漁中인데 目下一萬五千樽以上의漁獲되야 近代稀見의豐漁라고한다 昨年의 平均一組二萬七千樽을 今年에突破할形勢에잇다

京城商議臨時總會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九日午後四時부터 議員總會를열고알에와가튼事項을附議할터이라고한다

(一) 定款變更에關한件
(二) 朝鮮產業審議會設置에關한件
(三) 日本商工會議所定期總會提案事項에關한件

東北災害對策
運賃減免取扱
◇…鐵相言明

【電通東京電話】東北地方災害對策으로鐵道省에서도生活必需品運賃의 減免取扱을할方針으로서過日東北六縣市民의陳情에對하야 內田鐵相도 그方針을明示하엿는데 細目에關하여는農林省의 調查研究結果를기다려 決定할터로그時期는今月十日前後로될터이다

商工界消息

▲安田銀行京城支店新築＝安田銀行京城支店은 臺者商銀隣接地에 新築移轉키로 決定하고 本店에서 設計中이든바 最近完成하엿슴으로 今月中 工事에着手키로 決定하엿는데 竣工은來年九月의 豫定이라고

商況 (六日)

株式 小幅圈內 採合

前場反戾 昨後場賣叩와 嫌氣投로瓦落되엿든 [illegible] 今前場은 [illegible]으로日產이百十九圓

貨幣價値와株界
惡目買狙有利

勢가 다시健康을害한것으로볼것이다。어미整理가 完了되엇다는大勢强氣觀이押目買物이潛在한까닭에 無理淸算이업는터이나 採合이길면 結局은一段更히惡化를難免할것도가티보이엇다。

目前形勢는 再惡化로도보이나 貨幣價値로본 株界大勢는如何한가? 過去三年間에通하야 莫大한株式을 大衆이사서 滿腹狀態에잇는것이 事實로 萬一金融이緊縮되어 金利가 引締된다면 株式大勢는 눈감고 팔것이겟지만 今日은 兌換停止時代로서赤字公債가 逐次 發行되어 早晚通貨膨脹을 難免하겟스며 公債政策上 低金利策은一層徹底될것이니 걱정할것이업다。半年間에直한 整理의漸落으로氣가弱한것이 事實이나 今後의惡目은 買狙함이 得策이라는强氣論이잇다。

五十錢에까지떠러젓섯스나 百二十圓六十錢에 下遊反騰大引되어 昨後止보다二十錢高이고 其他도採合後結局東新百四十七圓二十錢에 一圓反戾大引、大新八十九圓二十錢에 五十錢高大引、朝新二十九圓九十錢에 同價大引 朝取六十三圓丁、安取七圓五十錢 日產六十八圓四十錢이엇섯다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休會

後場은例休인데 日產四十錢高、大新二十錢高、鐘新과 東新十錢低의區區이엇슴으로 當地氣配도 大體不變이며 來週初도 別無期待이엇다

健康體恢復難
再惡化難免?

陸軍『팜플렛트』發表를 契機로市勢는다시 騰勢가挫折되고 昨後場은嫌氣投와賣叩로 東新百六十一圓臺 大新八十八圓臺로 一齊反落不勢를演코나서 今前場도 採合裡少返大引이엇는데 이가티 形勢가不勢로變한原因이『팜플렛트』問題에만잇는가? 經濟的으로 實際影響이別로업슬것은 누구나다알입이지만 政治的으로는 여간 큰問題가아니다 臨時議會를앞두고 이것에對한關心이 섞거리가 될形勢임으로 이것 자것으로 政局不安이 再然된때문에 前月까지의 大打擊으로 恢復이完全히되지못한 市

實物前場取引

賣買高四八〇枚 ▲滿洲세멘트 [illegible] ▲德山鐵板 [illegible] ▲東滿칼平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帝麻新 [illegible] ▲哈賓세멘트 [illegible] ▲日本石油新 [illegible] ▲朝鮮郵船 [illegible] ▲蒲山 [illegible] ▲西鮮合同新 [illegible] ▲土佐세멘트 [illegible] ▲日本鑛業 [illegible] ▲大分세멘트 [illegible] ▲第二에다파이 [illegible] ▲에다파이新 [illegible] ▲滿洲製粉 [illegible] ▲福井人絹 [illegible] ▲滿毛優先 [illegible] ▲櫻田機械 [illegible]

增資延期와日產
買材料로解釋

日產은다시百二十圓臺門이깨어지고나서 關門往來인데이미增資不能說로賣키도하얏스며 底調資無延期가알려진터이니는되세음이다。保險圈으로부터五分의利息으로 融資하는便이增資하야 一割二分의配當을하는것보다有利하다는解釋까지잇서 增資延期를도리어買材料라고보는者도잇다한다

市場六感

株

嫌氣投로瓦落이엇스나 押目買로下값强 ▲採合! 不勢! 反强으로結局은價位를 低下식히는세음인가? ▲나종일은何如間에市勢가이모양이니 여간큰材料가나오기前에는다시 活潑한上勢를演키가 어려울듯 ▲財界前途에對하야 確乎한豫想을세우지못하고 活氣업는鈍調가繼續▲一氣棒下는勿論잇슬것갓지안호나 積極的으로 買할생각은생기지 안호니 ▲軟派의賣込을 기대려惡目을 買拾하는 商方針이나 取하는外에 別無他途일가? ▲死線에서彷徨타가 겨우목숨만건진 市勢의急激한恢復을바란것이失手엿지!

米

南洋方面에또新颱風이邦出하엿다나 구만뉘 어도구리다고日本內地의風災民들은 가슴이두근두근하렷다 그러나新颱風의 詳細는아즉未知▲幾十年만에 한번잇는風災地에 再次襲來할理는업슬터이지▲그러나世界的記錄의 颱風이지나간後 黃熟期의三日間 雨天이란可謂禍不單行▲식은밥두고잠아니오는것가티 硬派의心事는 焦燥한모양▲拂下를한다할지라도 大量拂下는업슬것이오 小量拂下에는 米價에何等의 影響이업슬듯▲當限은拂下說에보기조케 暴落을告하기는 하엿스나 正米의實勢가依然 頑强하야丸仁三等二十八圓五十錢을維持하니 當限도以上의低落은업슬듯▲何如間大勢를잘利用하라면 오시메買가 得策일모양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二、六五
一回四分利	九八、六〇
二回四分利	九八、六〇
佛貨四分利	一八四、〇五

期米 突騰反落 波瀾

前場突高

昨後場阪地二十九圓〇八錢止와共히 二十六圓十四錢에 寄附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利付二十九圓二十九錢止 二十一丁高를襲하고 二十六圓三十一錢인 十七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四十二錢으로 續騰됨을따라 五十錢의高價가잇고 三十四錢에弛하야다가 阪止三十三錢과共히四十三錢에止하다

後場反落

後場은政府米拂下說로二十六圓二十錢에 二十三丁急反落하야場後三、四節二十四錢으로五節二十錢에鈍狀이고 別欄가티止하다

各地買氣再燃
原因은雨天?

颱風의餘波로 一齊히爆騰하든 各地市勢가 高價에서七八十丁의反落을 示하더니昨後場부터다시買氣旺盛하야東阪兩地는新高價를演出하고當限은六圓五十錢까지再燃하엿다그原因의所在를窺하면南洋方面에現出한新颱風이北北으로進路를取하고잇스니아즉도그詳細는알수업고日本內地에는三日間이나雨天을繼續하야目下黃熟期에非常한打擊을加할모양인데此를機로한阪地의馬越一派가大馬力을내어有勢히買進하는關係도업지아니하다果然今日米穀委員會에서決定할拂下問題가어떠한程度로落着될지는 몰으나大體의米價는 凶作이란 大痛이뭉처잇슨즉 如干反動落이잇다할지라도 結局은新高價에新高價를加重하지안흘수업슬것이라 果如何?

中先은頑强코
當限만은軟弱

今朝當地中先은 四十丁內外의暴騰에反하야當限은 二十丁內外의低落을告하엿다要하면中先은 十一、十二兩月限에 當期에受渡되는限月임에도 拘하고 凶作의買人氣가依然不衰하야容易히瓦落을 行하지못하는만큼 動搖反撥의氣勢를 呈하며當限은 一時渡米不足云云으로 二十九圓三十錢까지奔騰하엿스나 今日米穀委員會에서 政府米大量拂下의提案을 하기로決定發表하엿슴에따라 實際渡米의準備가 업스면서도淨斷的賣氣가旺盛하야 當는高價에서 百丁瓦落을告한바되엿다果然米穀委員會의結果가 何如할지는몰으나 大凶作의需給關係로 大量拂下를하기가 難望할것이오 結局은 百萬石程度로拂下할지도몰은즉此程度만으로는 米價의瓦落을招致할餘力이 업슬것이며 又는仁川三等玄米의二十八圓五十錢의市勢로 當限은更히더低落할餘地가업슬것갓다

朝取期米取組高

▲當限(賣) [illegible] (買) [illegible]
▲中限(賣) [illegible] (買) [illegible]
▲先限(賣) [illegible] (買) [illegible]

堂島前場暴騰

【大阪電話】頭上雨天으로 押目買氣强하야恢復模樣이엇다 ▲賣方中東側朝鮮側地場(處分)東京側(乘替)來谷側(利喰)目前側▲買方地場、東京側別派、兩山側 場違側 馬越、岡米

各地正米
釜山六十錢高
京仁三十錢高

京城躍進 一般高價警戒도 不活潑의市況이나 適品薄으로 定期高와相俟하야 三十錢高인 ㊂三等二八、五〇 四等二八、三五 一等白米二〇、〇〇

仁川更騰 拂下를압두고買方이低價買狙이나 定期頑强으로 三十錢更强인 ㊂三等二八、五〇 四等二八、三五 一等白米二一、九五

釜山狂騰 出廻二千叺、氣配地로부터의 買注文이殺到되얏하야 精米側의準備買付가依然히旺盛하고 市中在庫薄와共히 氣配는更히六十錢이狂騰하야朝來의取引은 千八十叺、㊂三等二九、四〇 四等二九、一〇 一等白米二一、八〇

大邱暴騰 適品薄인데다가 取引不活潑이나마 產地高와定期好勢를移하야 氣配五十錢高騰인 ㊂三等二八、五〇 四等二八、二〇 一等白米二一、三〇

南浦小强 晴天當用의買進가 繼續되어 定期高와共히幾分小强이엇다 ㊂三等二八、〇〇 四等二七、八〇 一等白米二一、二〇

群山强調 出廻一千叺 日本內地方面의 入注가相當하나地場所持側의 賣惜으로 新規用小口의 取引이잇서 閑散이엇다 ㊂三等二八、六〇 四等二八、三〇 一等白米二一、三〇

木浦伸惱 定期高를委엇스나 買人의 氣迷로商談이不捗이오 實行不立으로 保合伸惱인 ㊂三等二九、〇〇 四等二八、八〇 一等白米二一、六〇

金融 (六日)

油外經濟

倫敦金塊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六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六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鑛油外價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油外砂糖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高

[illegible]

期米 (六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賣買高

[illegible]

新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株式 (六日)

新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東新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